

분배없는 한국경제

새정치민주연합

2015년 5월 12일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한국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

“주의가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주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

동아일보, 1925년 1월 2일자 '신년만필'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은?

불평등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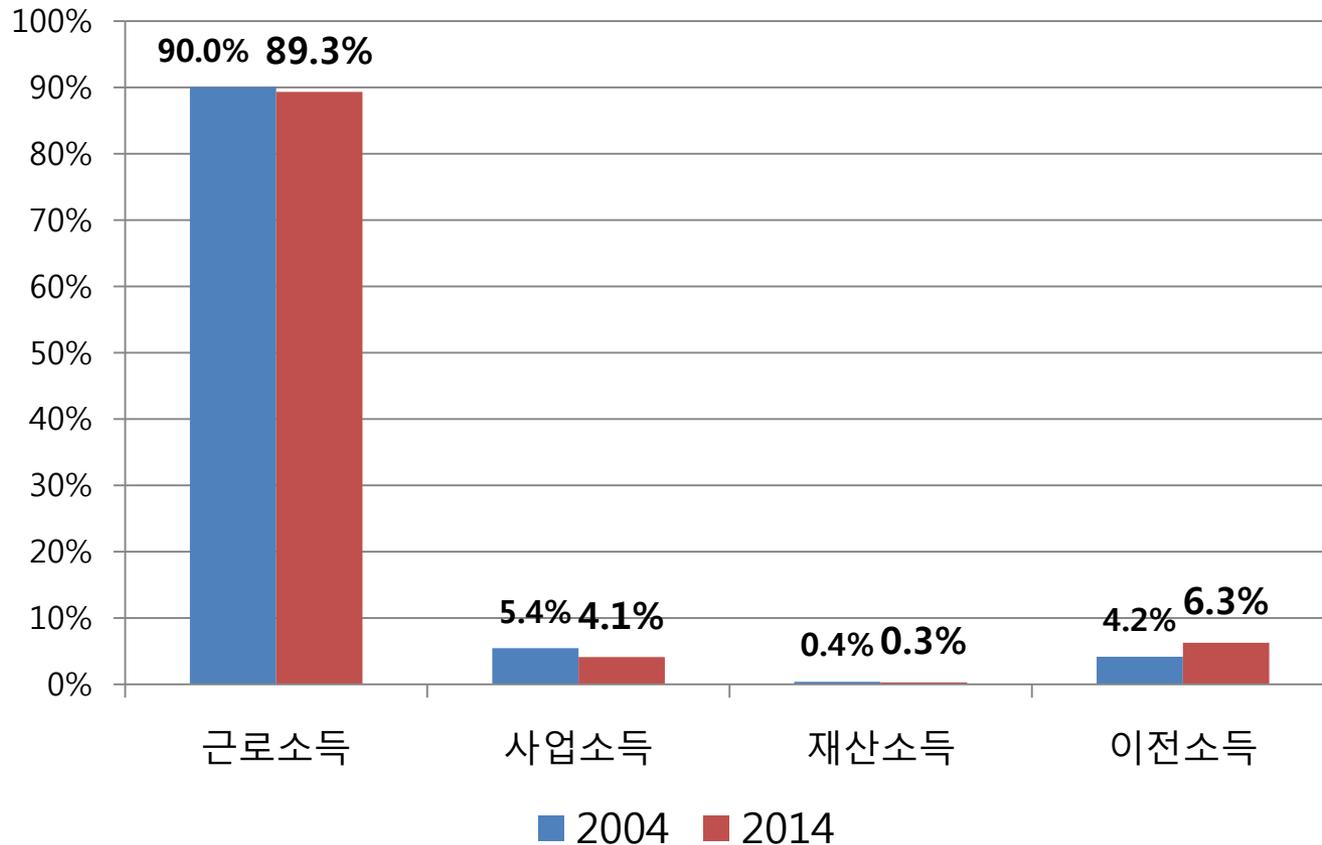
- 소득불평등
- 재산불평등

소득불평등

- 노동소득
- 재산소득
- 사업소득

도시근로자(2인 이상) 가계 경상소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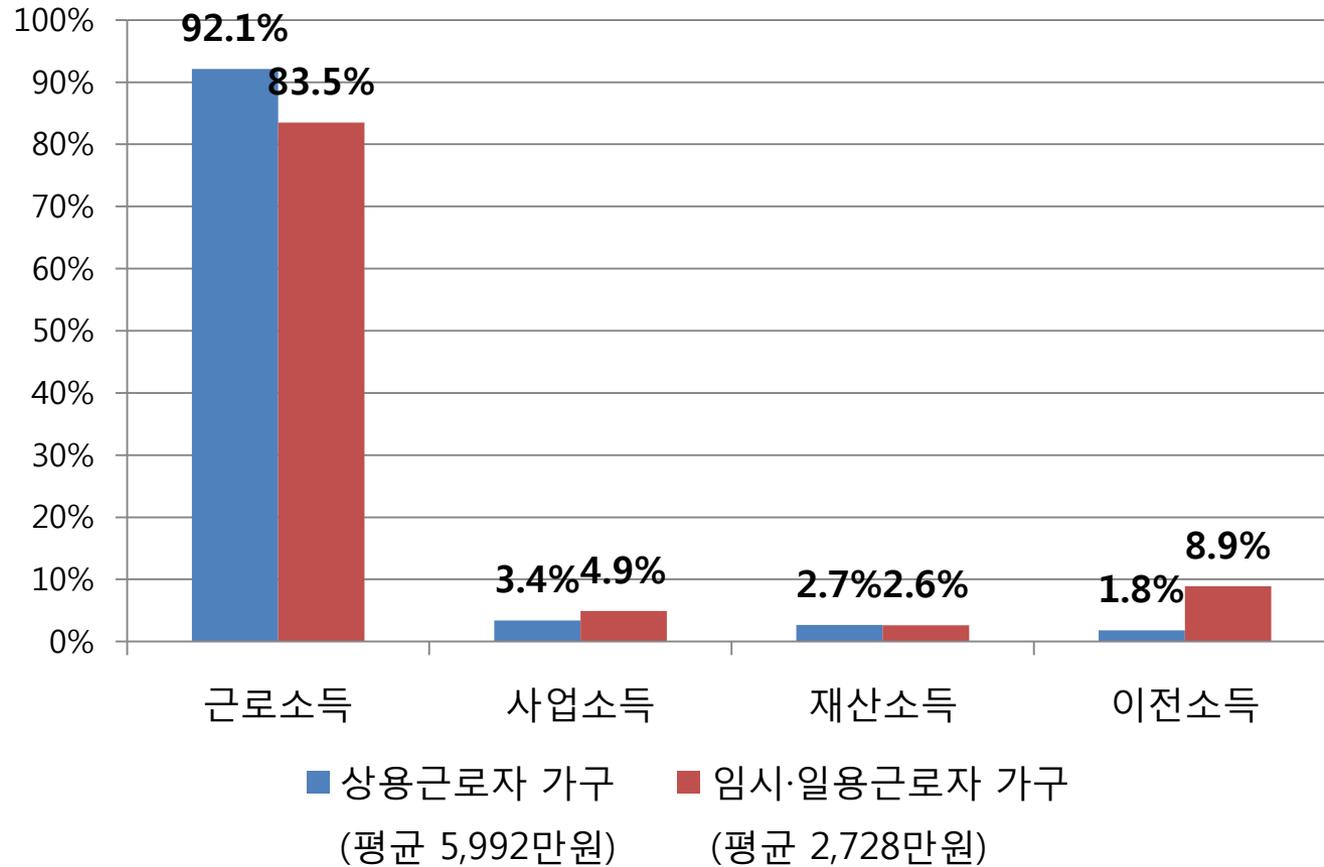
2004년, 2014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도시근로자(2인 이상) 가계소득 추이

근로자 가구 경상소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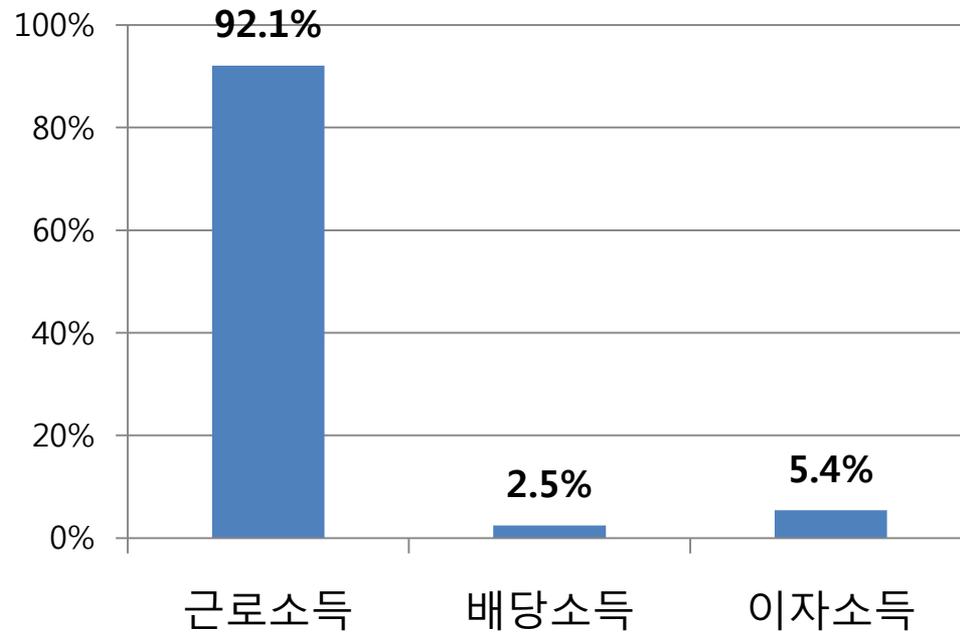
2014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4, 가구특성별 원천별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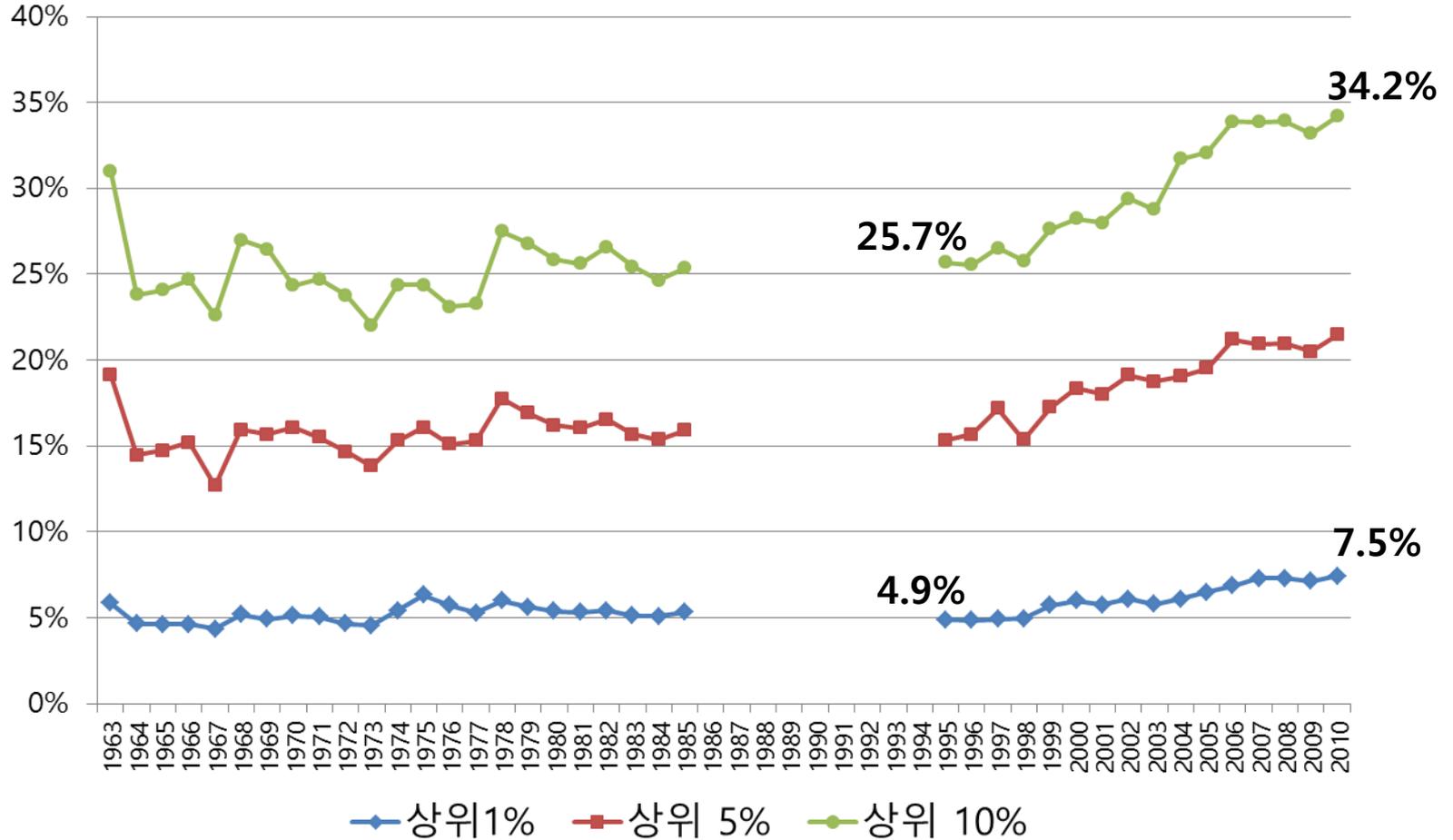
개인소득 총액

최재성 의원실 자료(국세청), 2012년



한국 소득불평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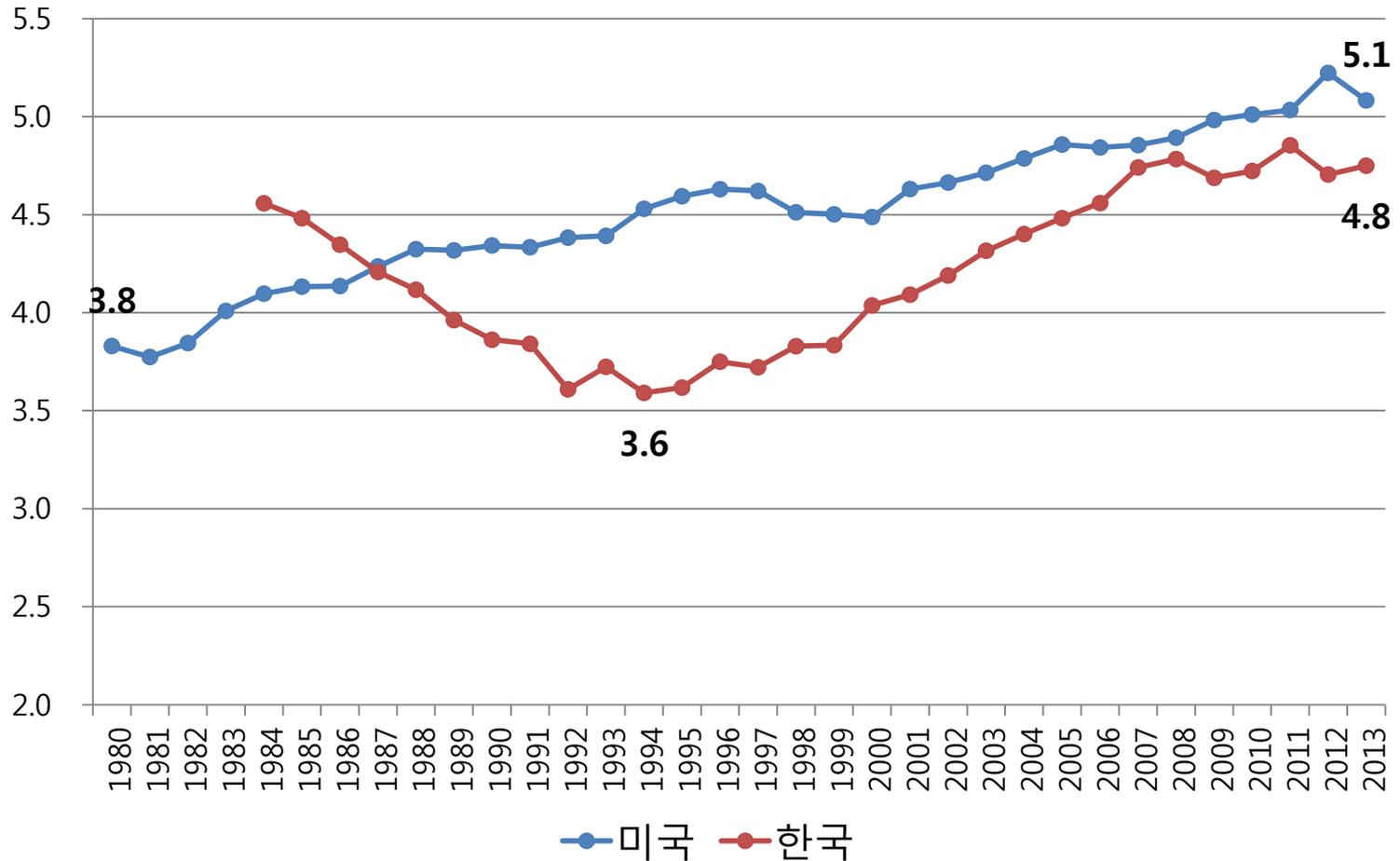
임금소득 상위 1%, 5%, 10%가 차지하는 비중



-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불평등의 정도를 추정한 것이다.
- 총근로소득 중에서 근로소득 상위 1%, 5%, 10%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 “고도성장기 근로소득의 집중도는 뚜렷한 상승 또는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고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외환위기(1997년) 이후 급속히 높아졌다.” (김낙년(2012) 125쪽)

소득불평등 악화: 한국-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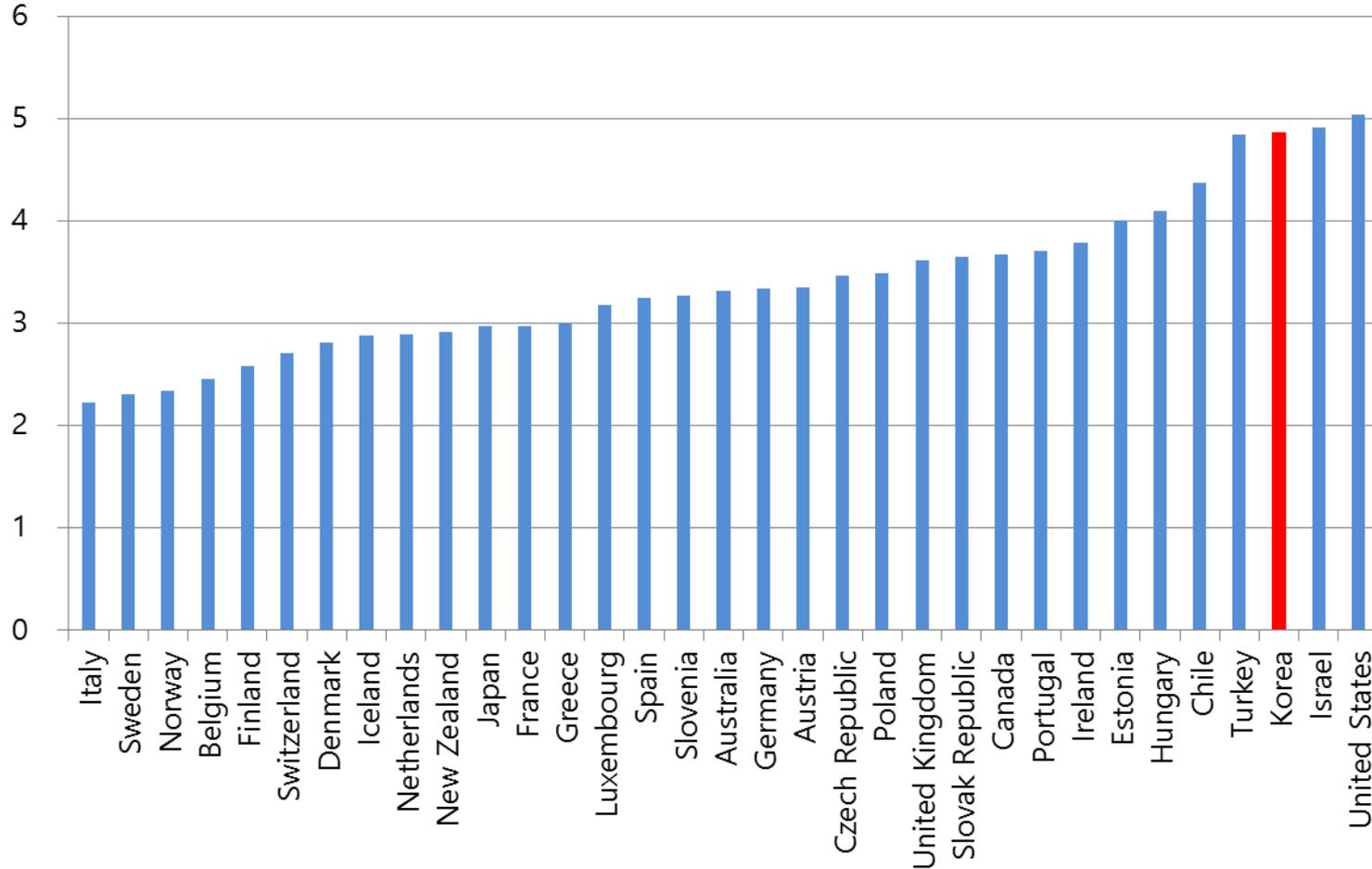
임금 최상위 10%/최하위 10% 비율



- 상용근로자 총임금을 기준한 것이다.
- 한국의 임금불평등 증가추세는 미국의 추세와 유사하다.
- OECD 회원국 중에서 2013년 미국이 가장 높으며, 스웨덴이 가장 낮다(2012년).

소득불평등: OECD 회원국

임금 최상위 10%/최하위 10% 비율,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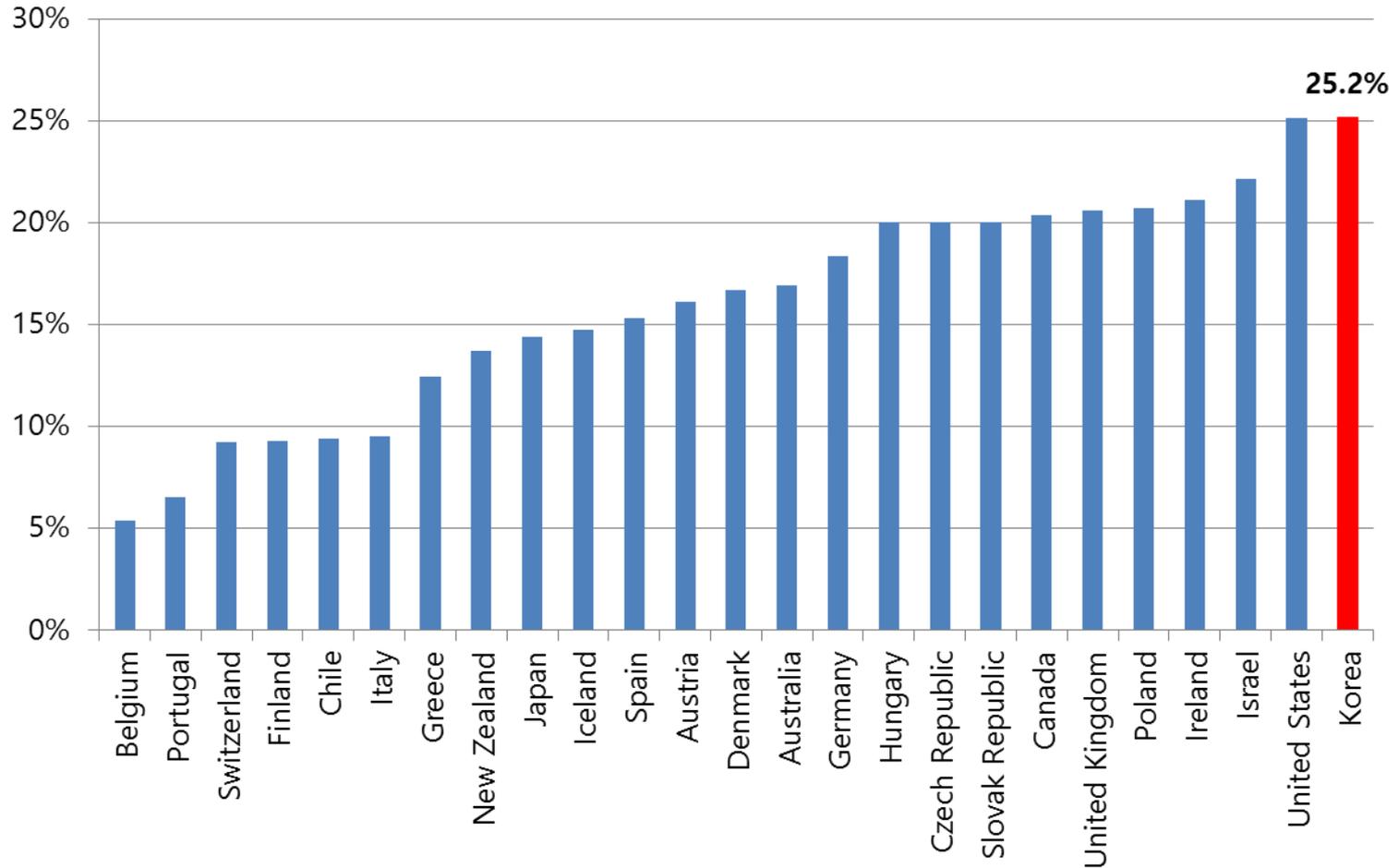
- 2011년 상용근로자 총임금을 기준한 것이다.
- 한국은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의 비율이 4.8이다.
- 우리나라보다 임금격차가 더 큰 나라는 미국 5.0배, 이스라엘 4.9배이다.

자료: OECD, , OECD.StatExtract, <http://stats.oecd.org/>

- Italy, Switzerland, Netherlands, France, Luxemburg, Estonia, Turkey는 2010년 자료이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

OECD 회원국,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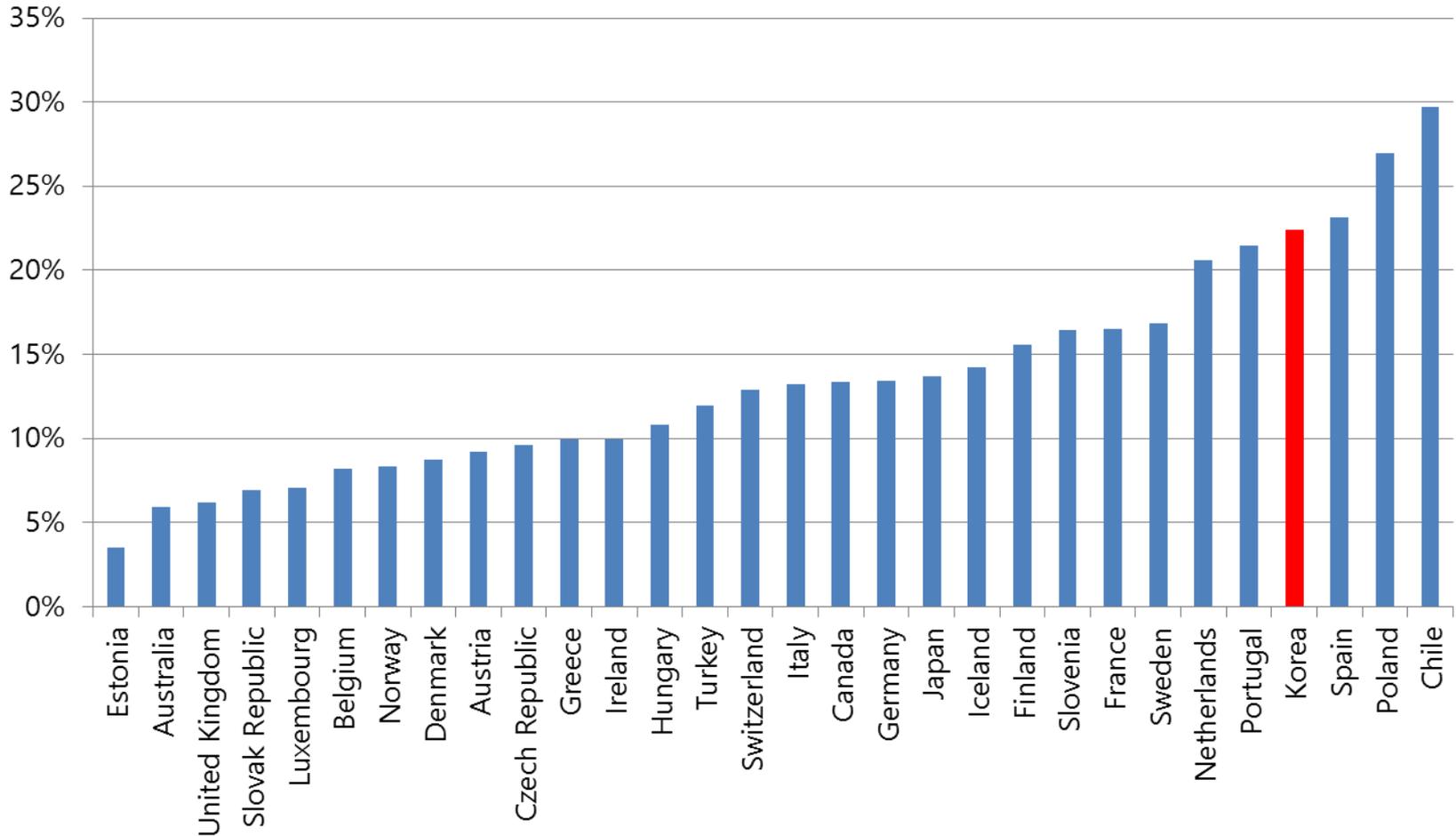
- 2011년 상용근로자 총임금을 기준한 것이다.
-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 상용노동자 중에서 중앙값 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다.
- 2011년에 우리나라와 미국은 똑 같이 25.2%로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자료: OECD, OECD.StatExtract, <http://stats.oecd.org/>

Switzerland, Italy는 2010년 자료임. Estonia, France, Luxemburg, Netherlands, Norway, Slovenia, Sweden, Turkey는 최근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서 포함되지 않았음.

임시고용 비율

OECD 회원국, Temporary employment,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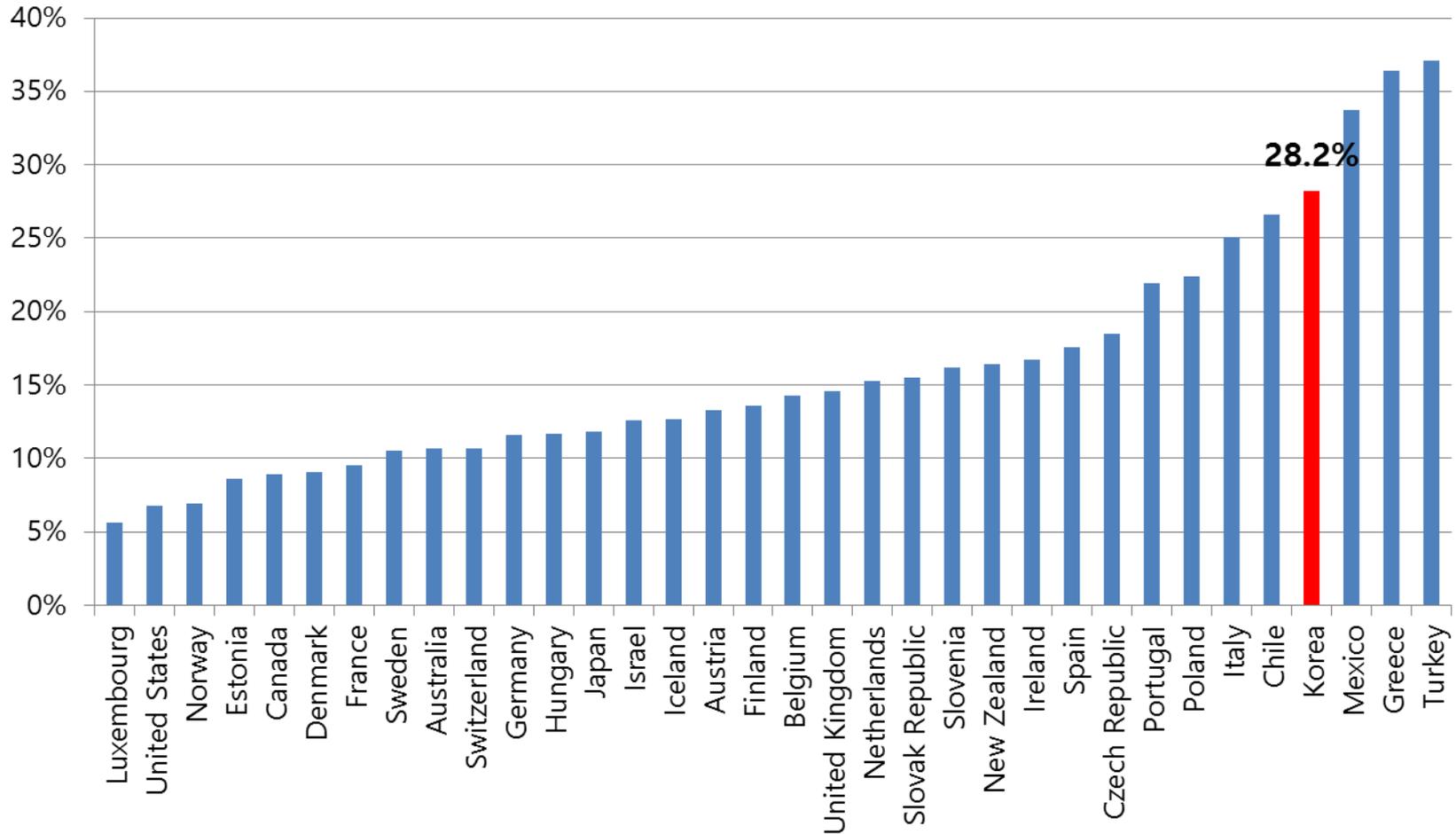
- 한국은 2013년 22.4%로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다.
- 임시고용(temporary employment)은 국가마다 정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에 고용종료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이며, 한국은 일시적 고용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자가 고용을 임의로 종료할 수 있는 계약직을 포함한다.

자료: OECD, OECD.StatExtract, <http://stats.oecd.org/>

- Australia, Japan은 2012년 자료임. 미국과 멕시코는 자료가 없음.

자기고용(자영업 노동자) 비율

OECD 회원국,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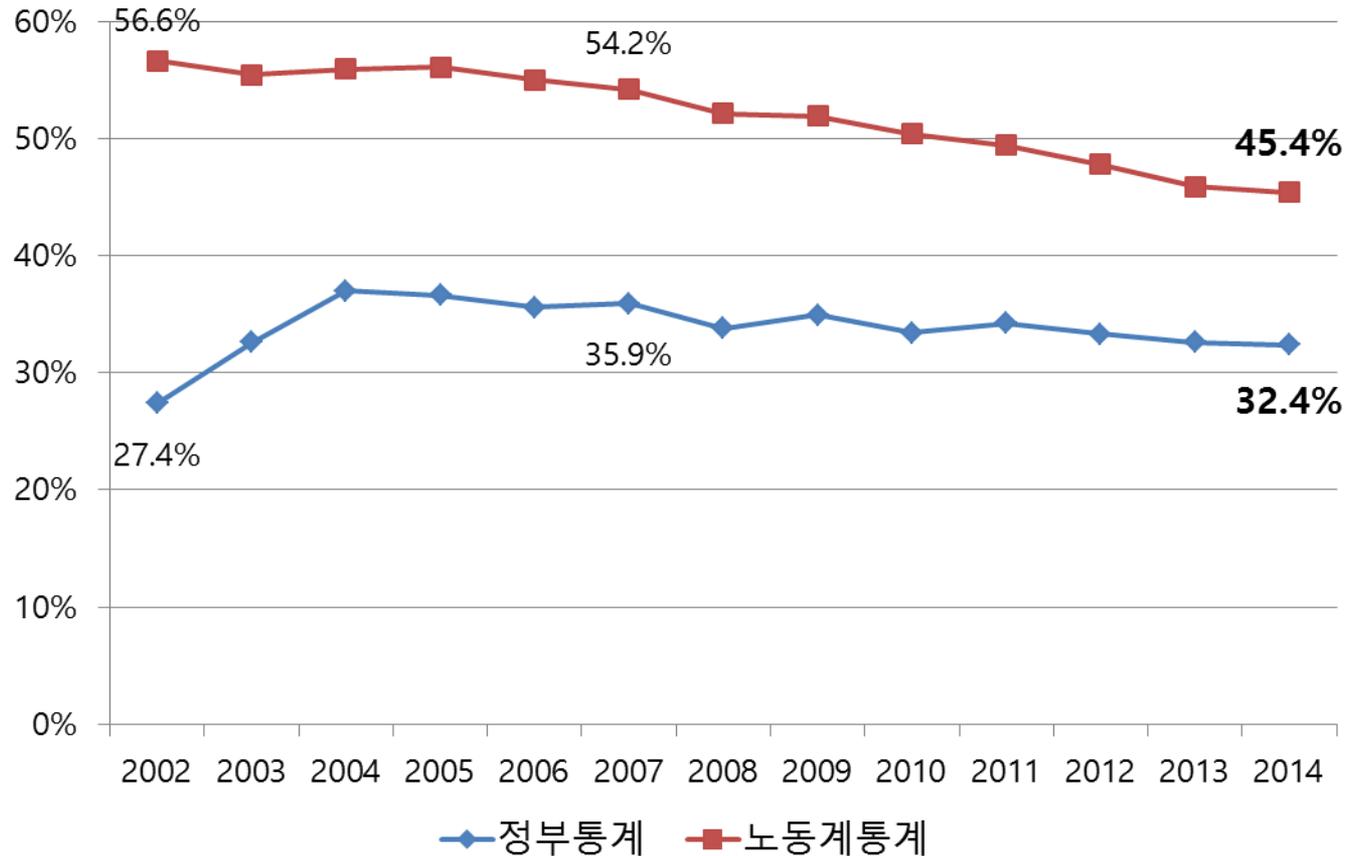
- 한국은 2012년 28.2%로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다.

자료: OECD, OECD.StatExtract, <http://stats.oecd.org/>

• Israel, Luxemburg, US는 2011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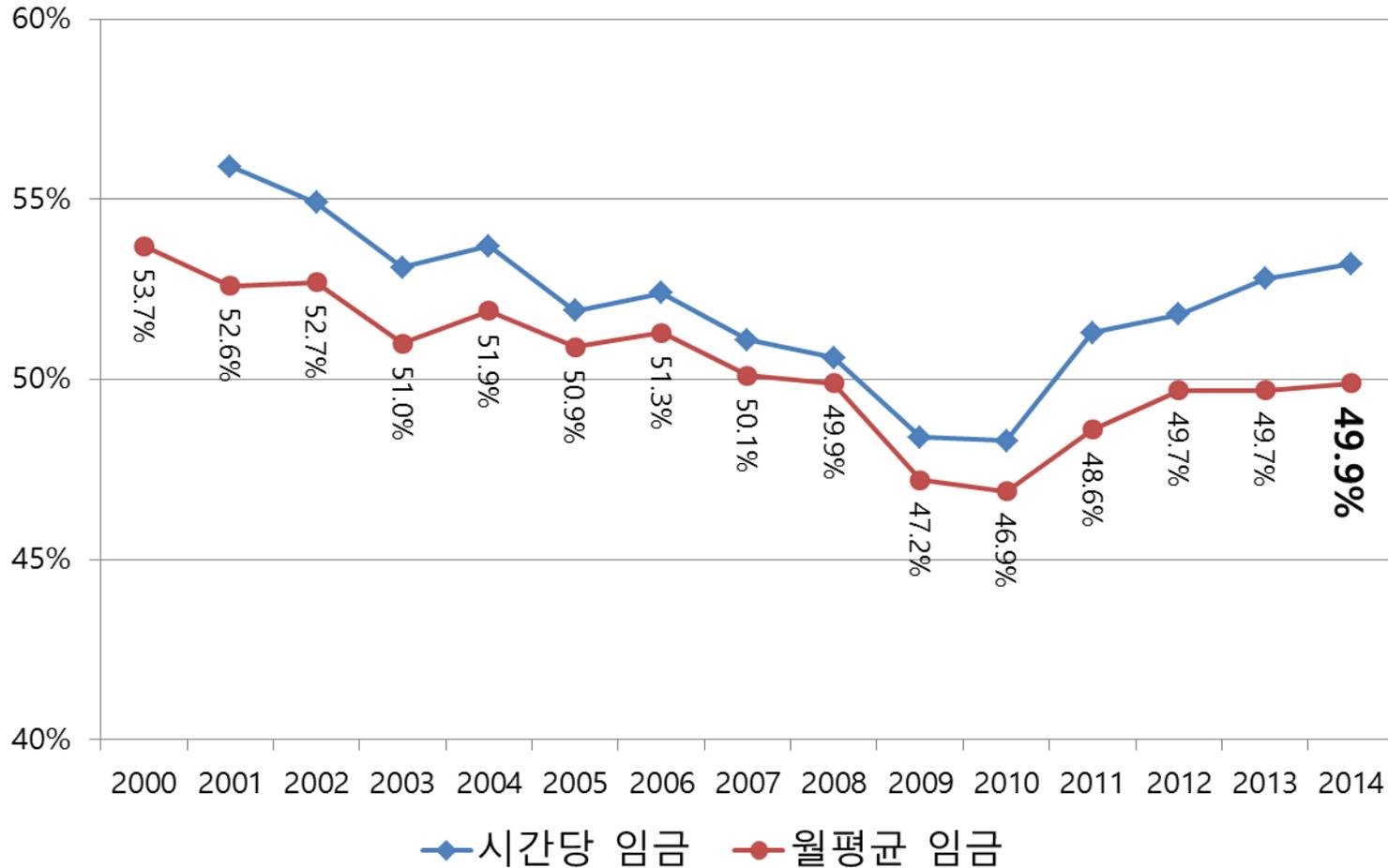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2002-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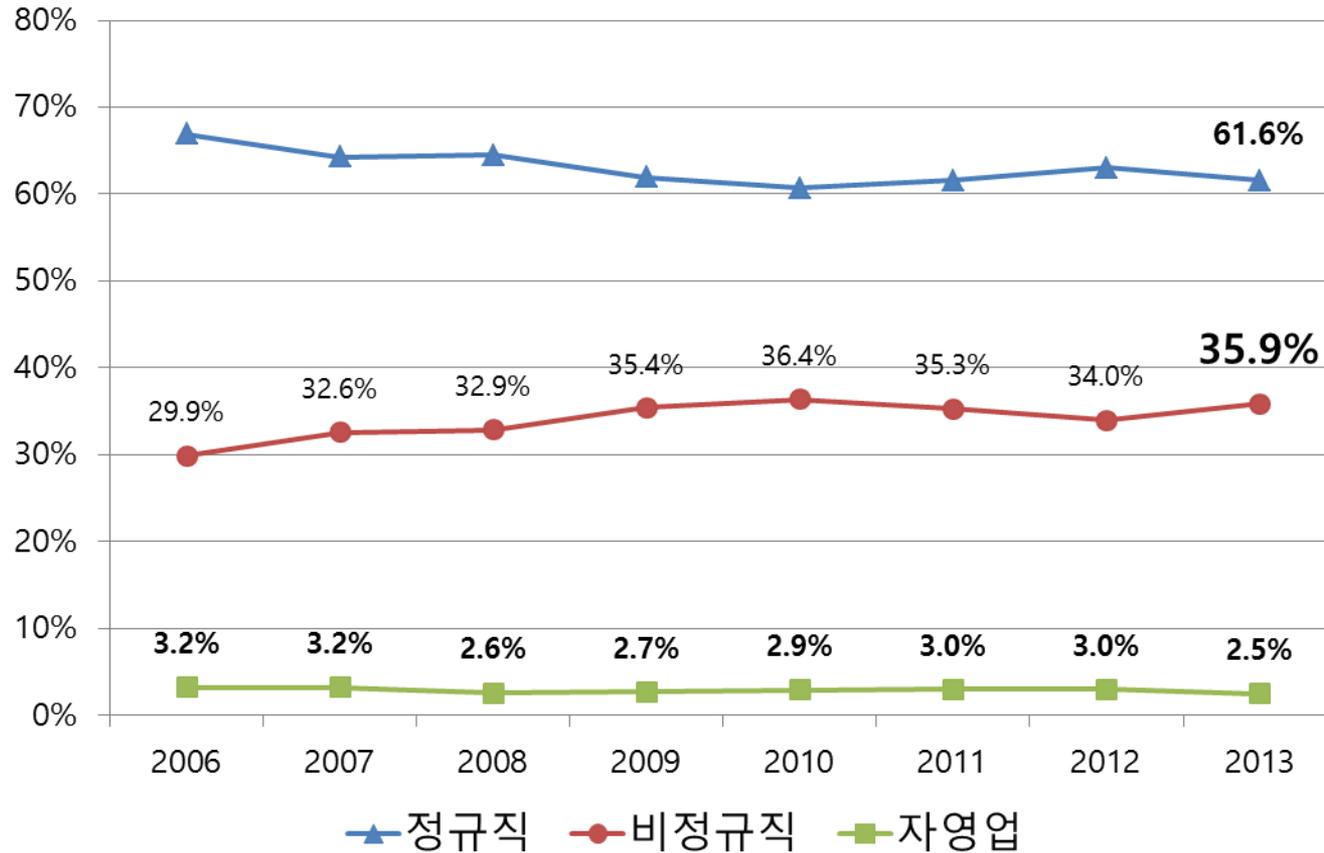
자료: 정부통계, 통계청, 노동연구원
 노동계통계, 노동사회연구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출처: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8)' 결과, KLSI 이슈페이퍼 2014-2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4년 11월

청년세대 첫 일자리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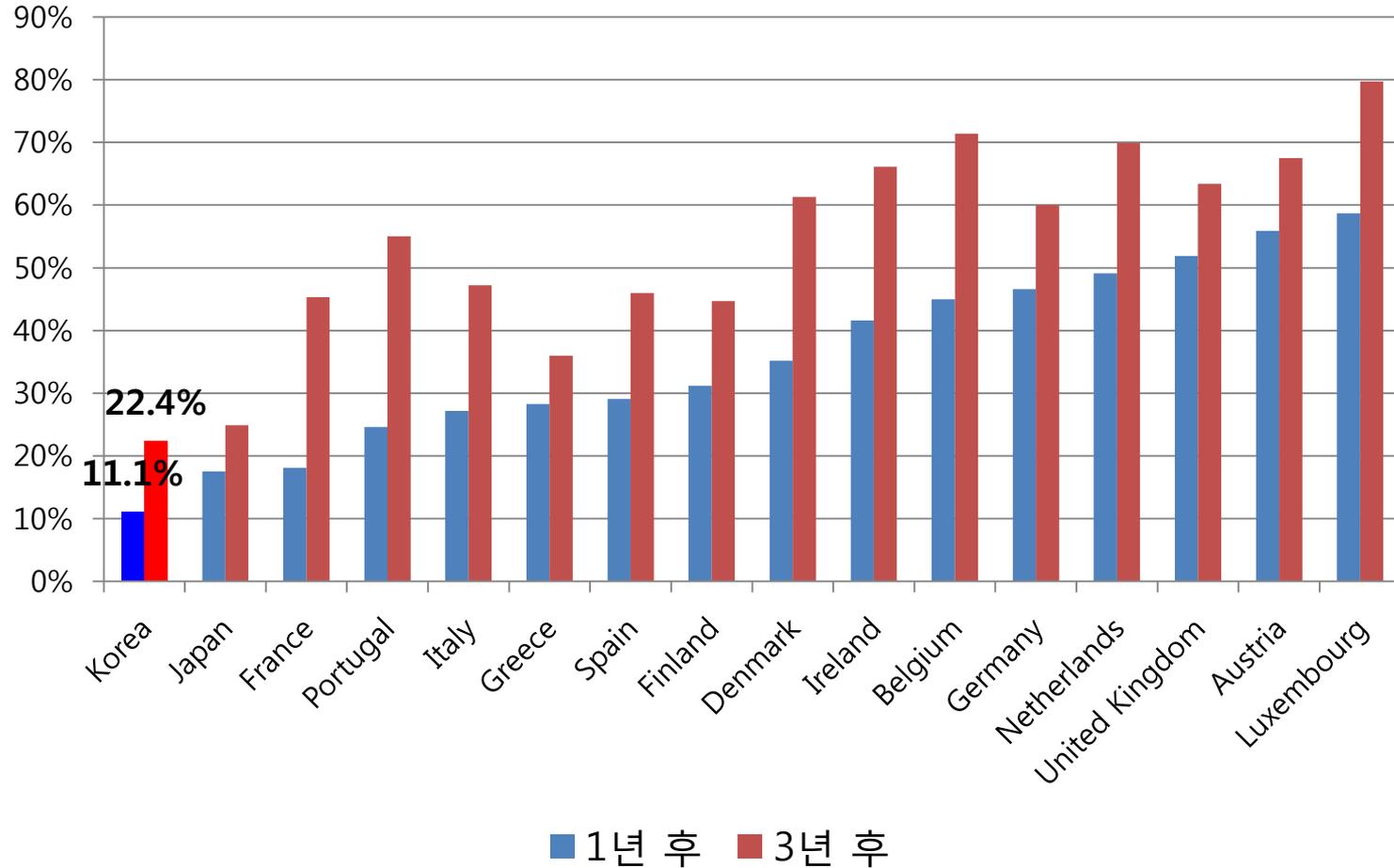


- 조사대상은 만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 중 재학자, 휴학자를 제외한 최종 학교의 졸업자이다.
- 비정규직은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와 일시적 일자리를 포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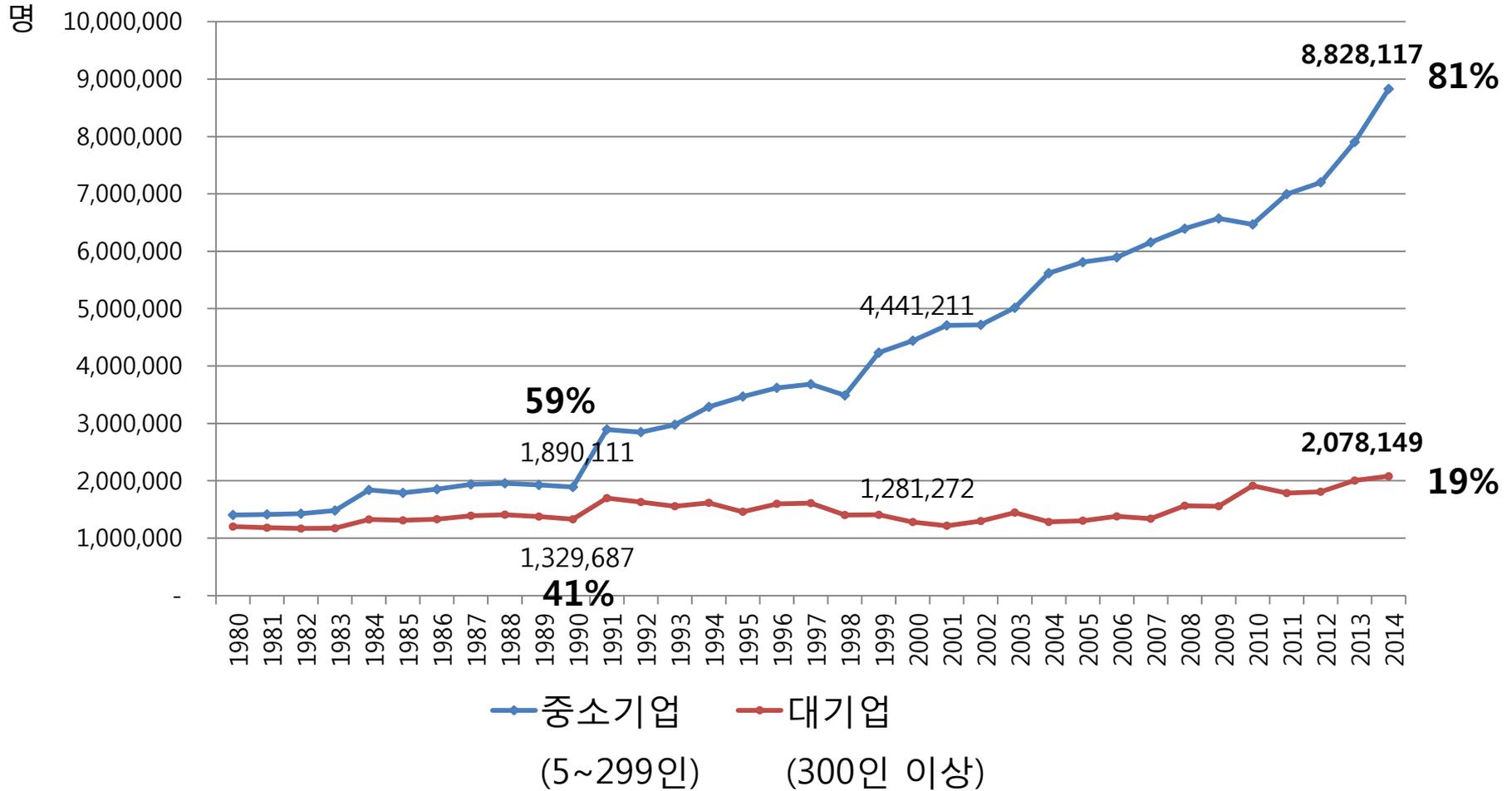
자료: 김두순, 청년층 일자리 진입 행태 분석, 고용동향브리프 2014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 4쪽

임시직에서 영구직으로 전환비율

Transition from temporary to permanent employment
16 OECD 회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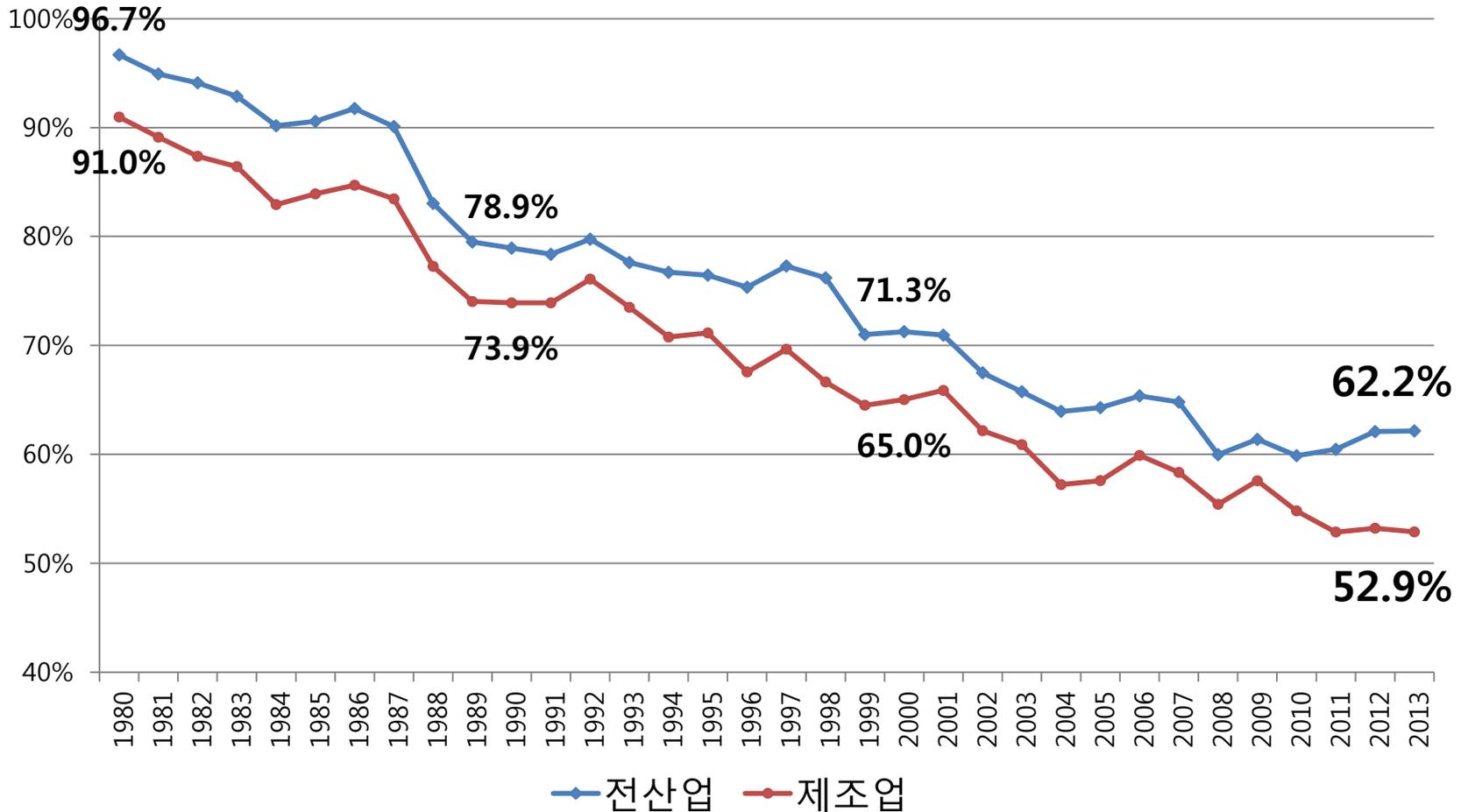


대기업 - 중소기업 노동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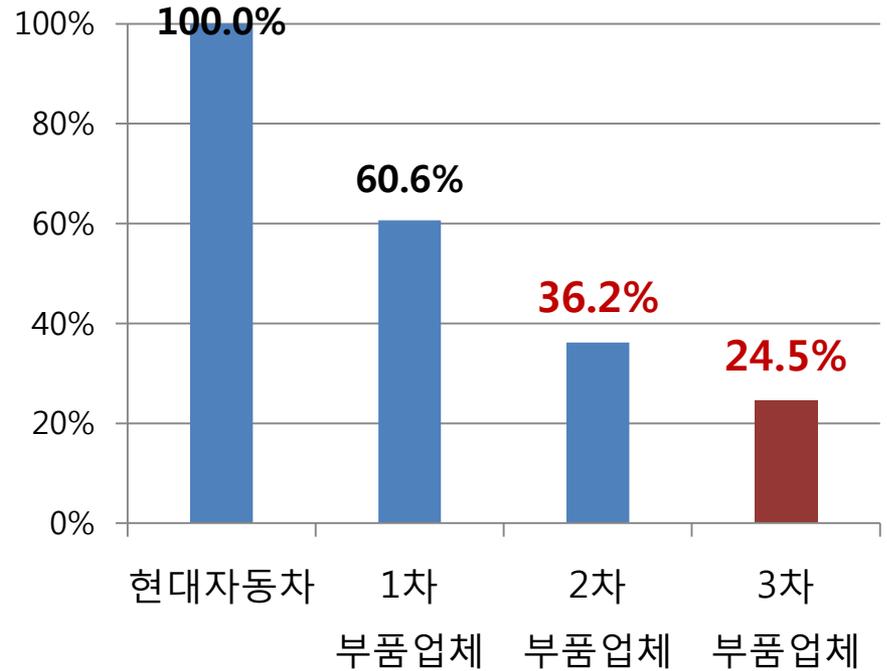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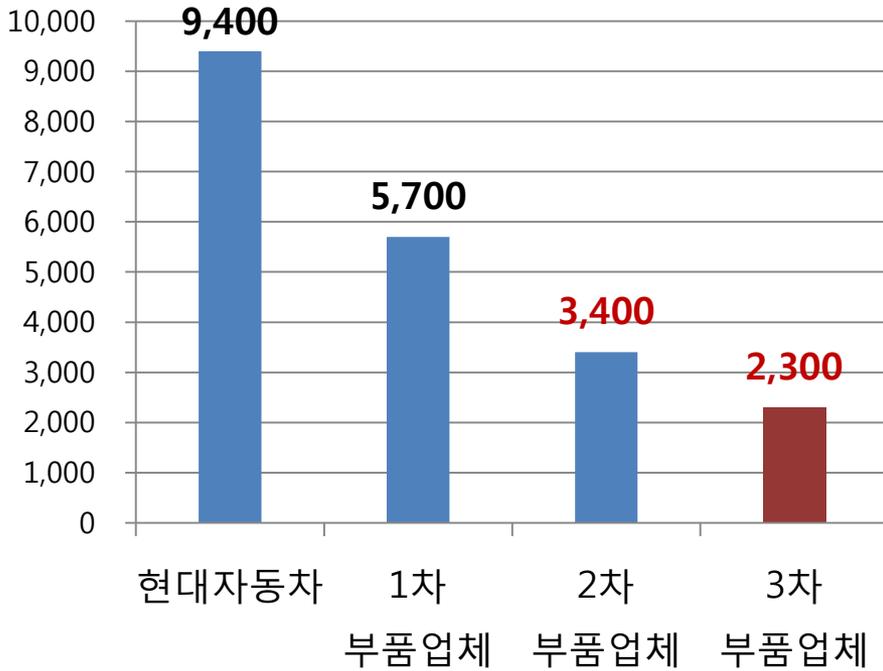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율

1980-2013년



대기업-하청기업 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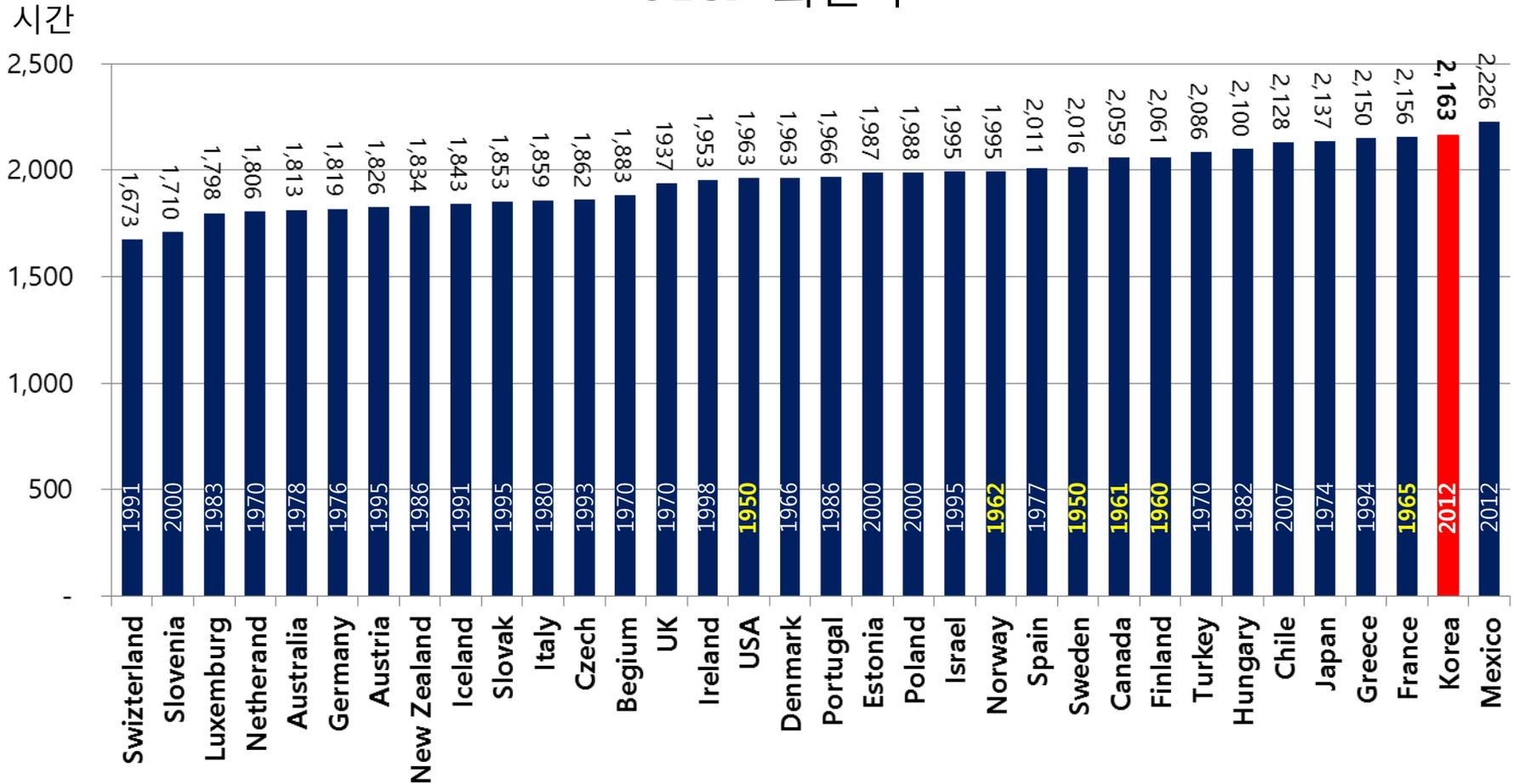
현대자동차-부품공급업체



자료: 조선일보, '더 벌어진 대기업-중기 임금', 2015년 3월 21일자 기사

연간 노동시간

OECD 회원국



- 국가별로 노동시간 통계가 제공된 첫 년도가 다르다. (예: 한국 1980년, 미국, 스웨덴, 프랑스 1950년, 핀란드 1960년, 캐나다 1961년, 노르웨이 1962년, 덴마크 1966년 등등)
- 각 국가별 통계가 제공되는 첫 해의 노동시간이 2012년 한국노동시간보다 작은 경우는 첫 해의 통계를 사용한 것이다.
- 각 국가별 통계가 제공되는 첫 해의 노동시간이 2012년 한국노동시간보다 큰 경우는 2012년 한국노동시간에 가장 근사한 년도의 통계를 사용한 것이다.

연간
노동시간

한국	2012년	2,163	
----	-------	-------	--

일본	1974년	2,137	38년 전
프랑스	1965년	2,156	47년 전
미국	1950년	1,963	62년 전
스웨덴	1950년	2,016	62년 전
독일	1976년	1,819	36년 전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 한마디로?

불평등

성장을 누리는 20%, 소외된 80%

- 정규직과 비정규직
- 대기업과 중소기업
- 재벌기업과 하청기업

누가 80대20 사회를 만들었나?

- **지키기**

- 보수: 기득권 지키기
- 진보: 이념 지키기

- **부정하기**

- 보수: 反시장 - 자기부정
- 진보: 反자본 - 체제부정

누가 80대20 사회를 만들었나?

- **외면하기**

- 보수: 현재 현실을 외면
- 진보: 한국 현실을 외면

- **헛다리 짚기**

- 보수: 분배는 외면하고 규제타령
- 진보: 분배는 잊고 재분배

누가 80대20 사회를 만들었나?

- **엉뚱한 대안 찾기**

- 보수

- 과거로 미래를 설계

- 기득권 틀에서 대안 모색

- 진보

- 수입 대안으로 한국설계

- 이념 틀에서 대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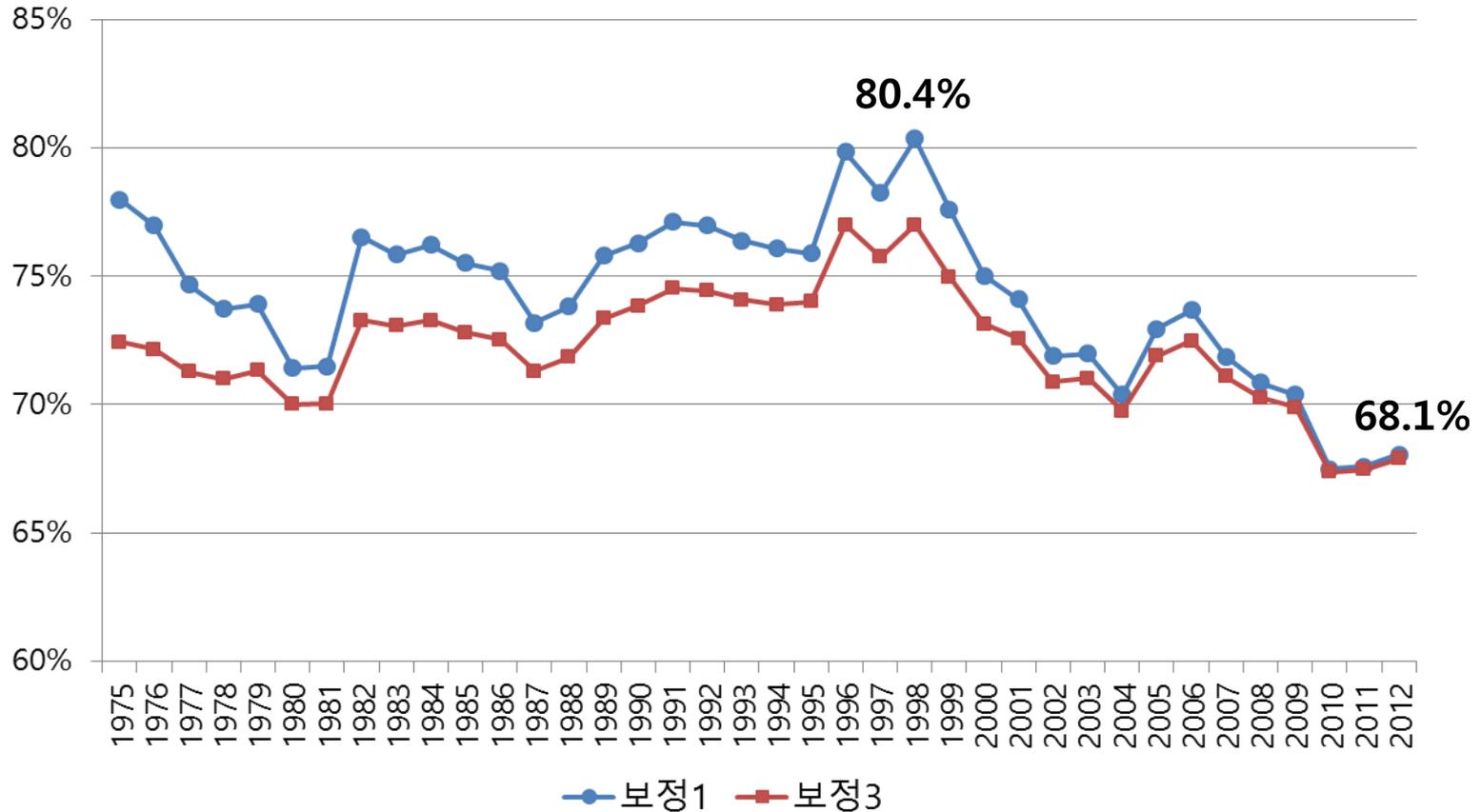
고장 난 한국 자본주의

-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
-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無성장

경제가 성장했는데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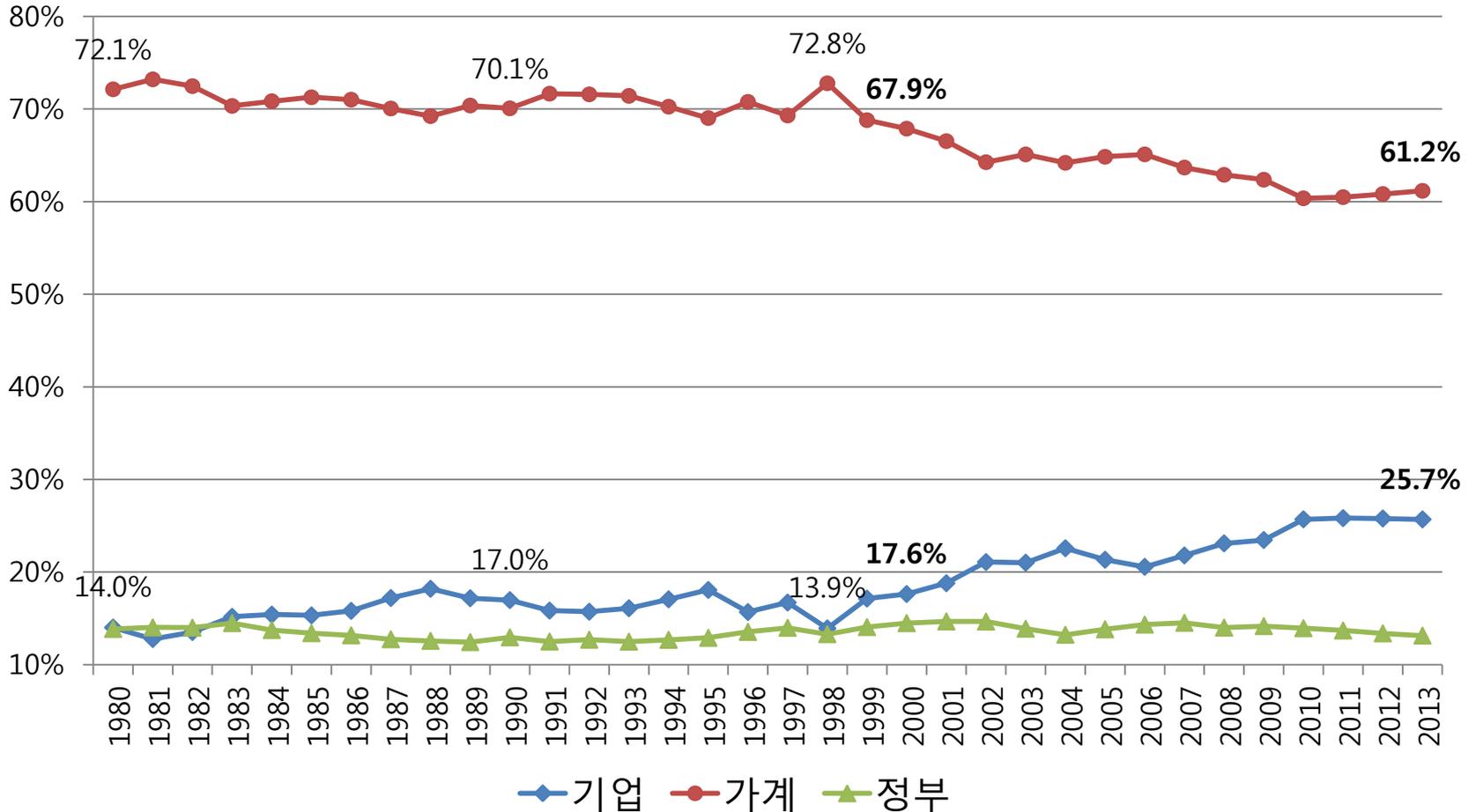
노동소득분배율

(자영업자 소득 보정 이후)



- 노동소득분배율은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자에게 분배된 몫의 비중이다.
-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0년은 1975년 이후 가장 낮다.
- 보정 1: 자영업자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같다고 가정
- 보정 3: 자영업자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라고 가정

국민총소득 중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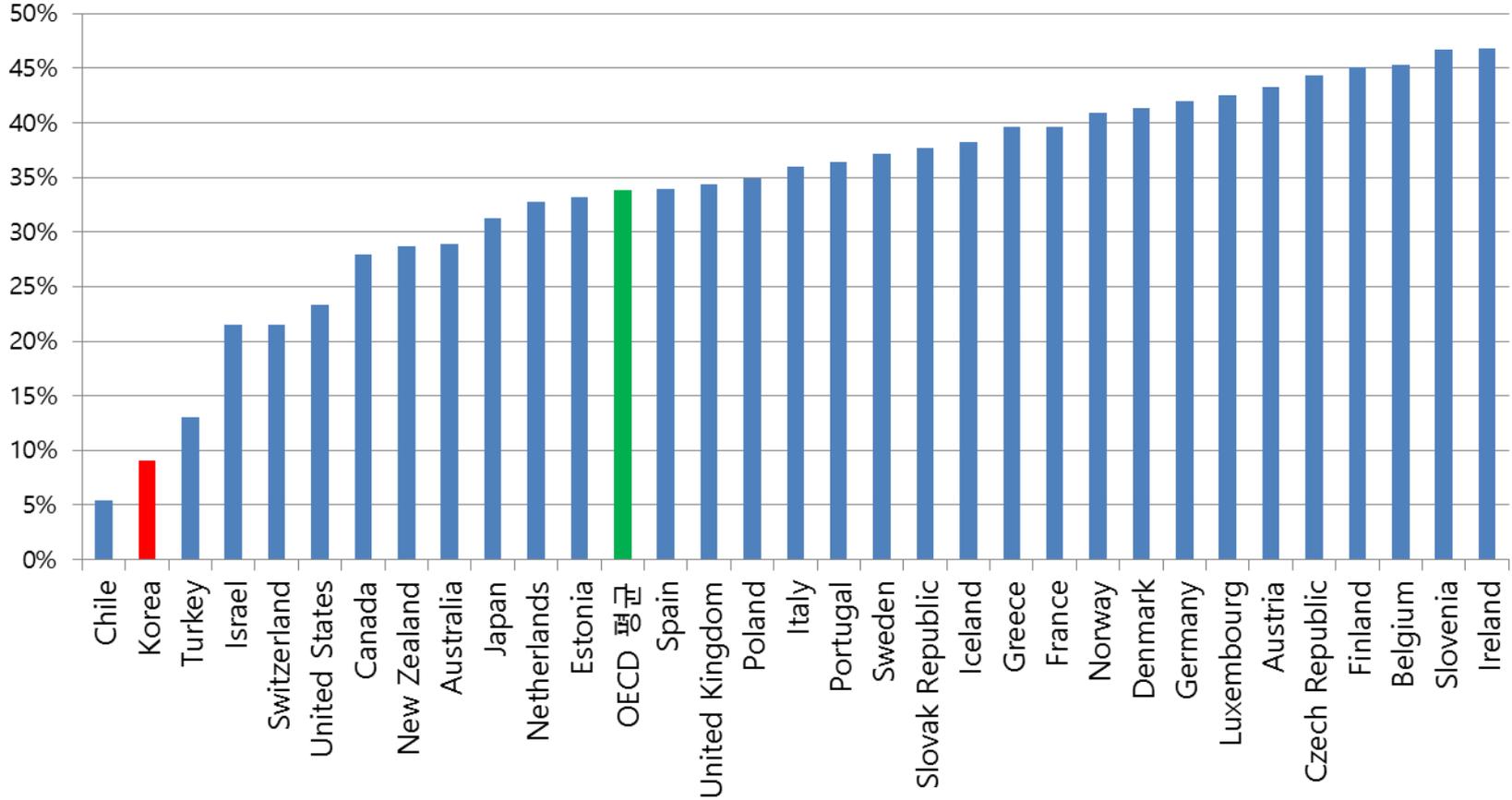
• 국민소득 제도부문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구성 비중이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소득재분배 효과

OECD 회원국, 2011년

소득재분배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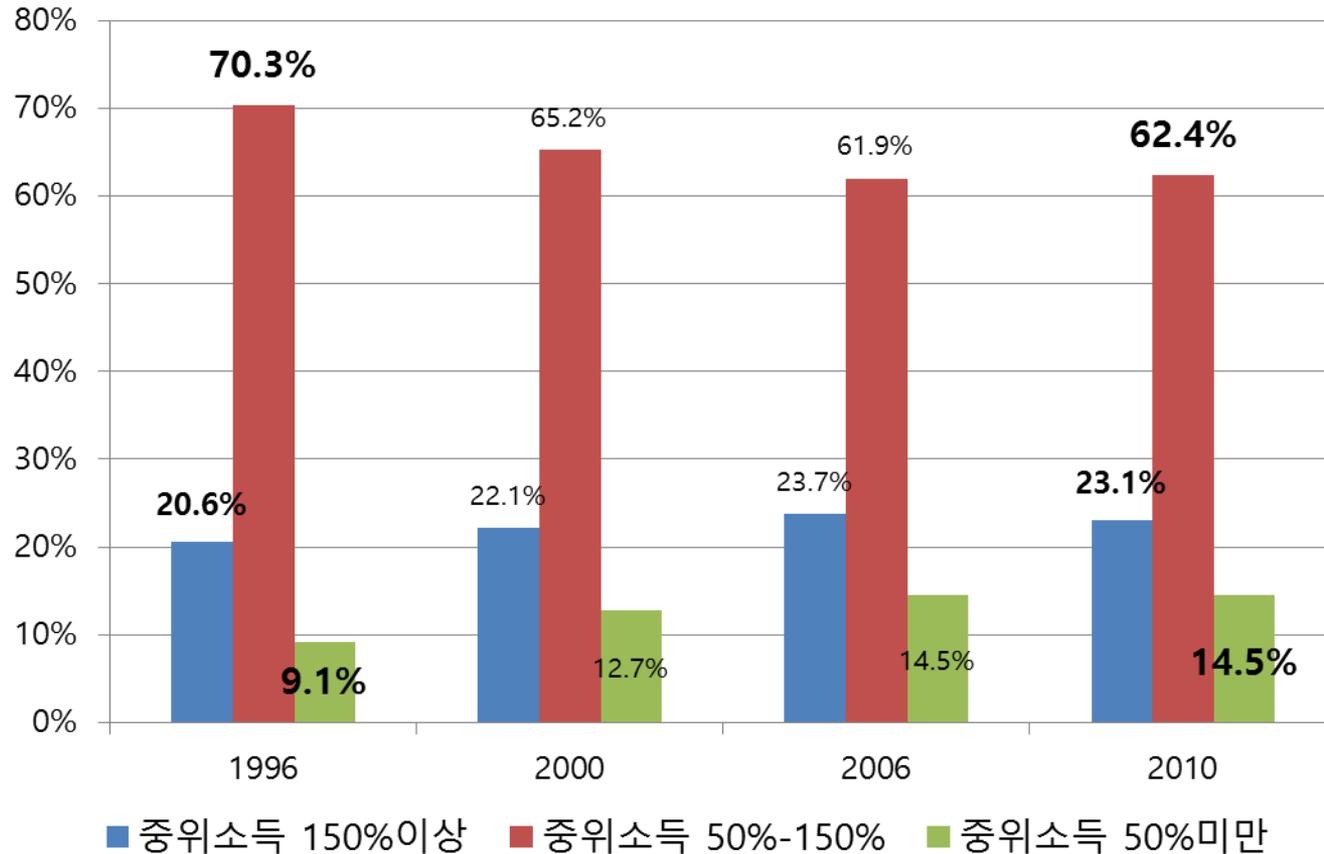


- 소득재분배 효과는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반영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로 측정된 것이다. 즉 재분배정책으로 낮아진 지니계수의 비율이다.
- OECD 통계는 한국정부(통계청)의 소득통계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통계인 가계조사 자료는 고소득층의 소득누락이 심각해서 소득불평등이 실제보다 과소측정되었다.
- 34개 OECD 회원국 중에서 자료가 제공된 32개 국가의 비교이다.

자료: OECD, OECD.StatExtract, <http://stats.oecd.org/> Hungary, Mexico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Australia, Belgium, Netherlands는 2010년, Japan은 2009년 자료임.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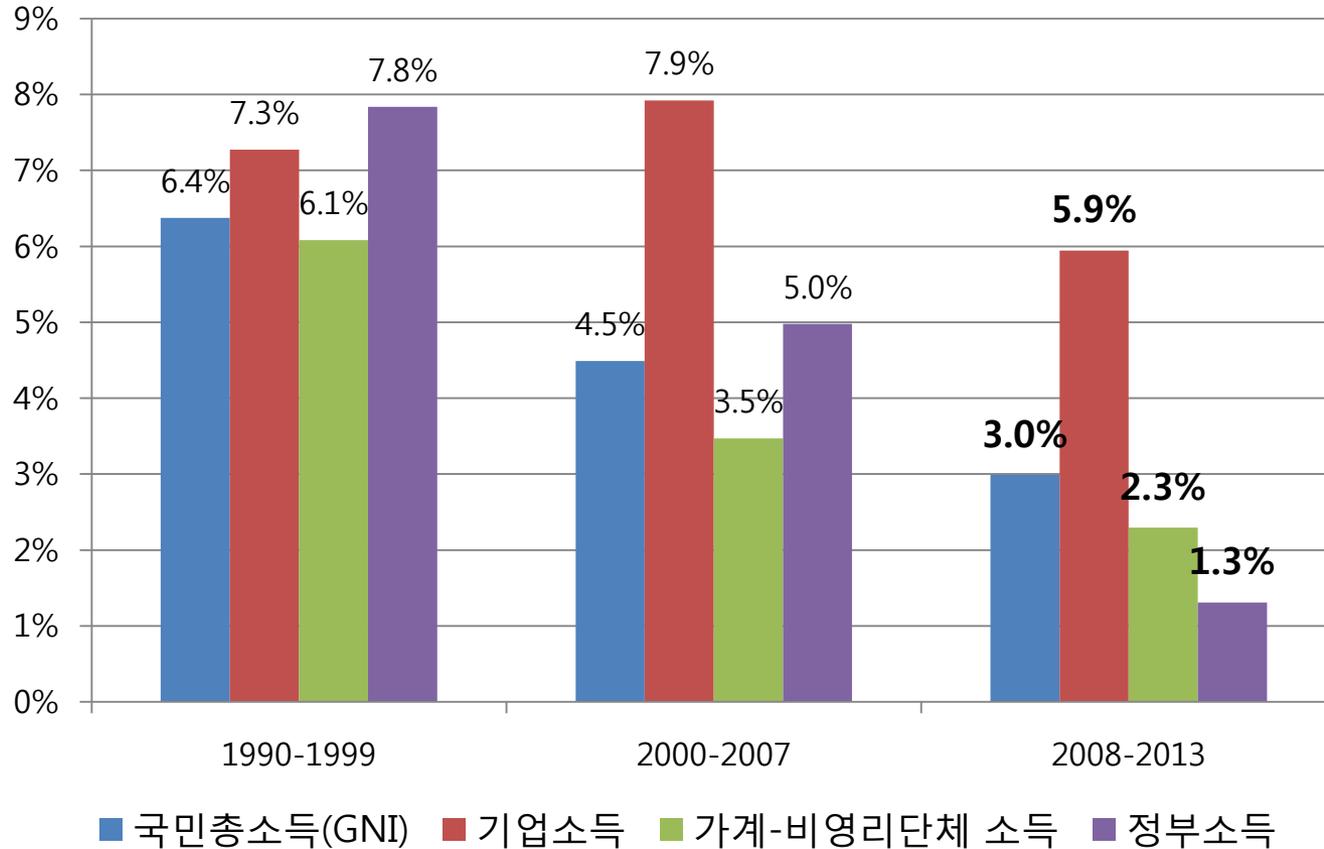
중산층의 축소: 가처분소득 기준



- 시장소득을 기준한 전체 소득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 중산층을 중위소득 50-150% 범위의 소득에 속하는 노동자로 정의한다.
- 중산층이 전체 소득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 중산층이 1996년 70.3%에서 2010년 62.4%로 7.9%point 감소했다.

경제성장률-가계소득-기업소득 증가율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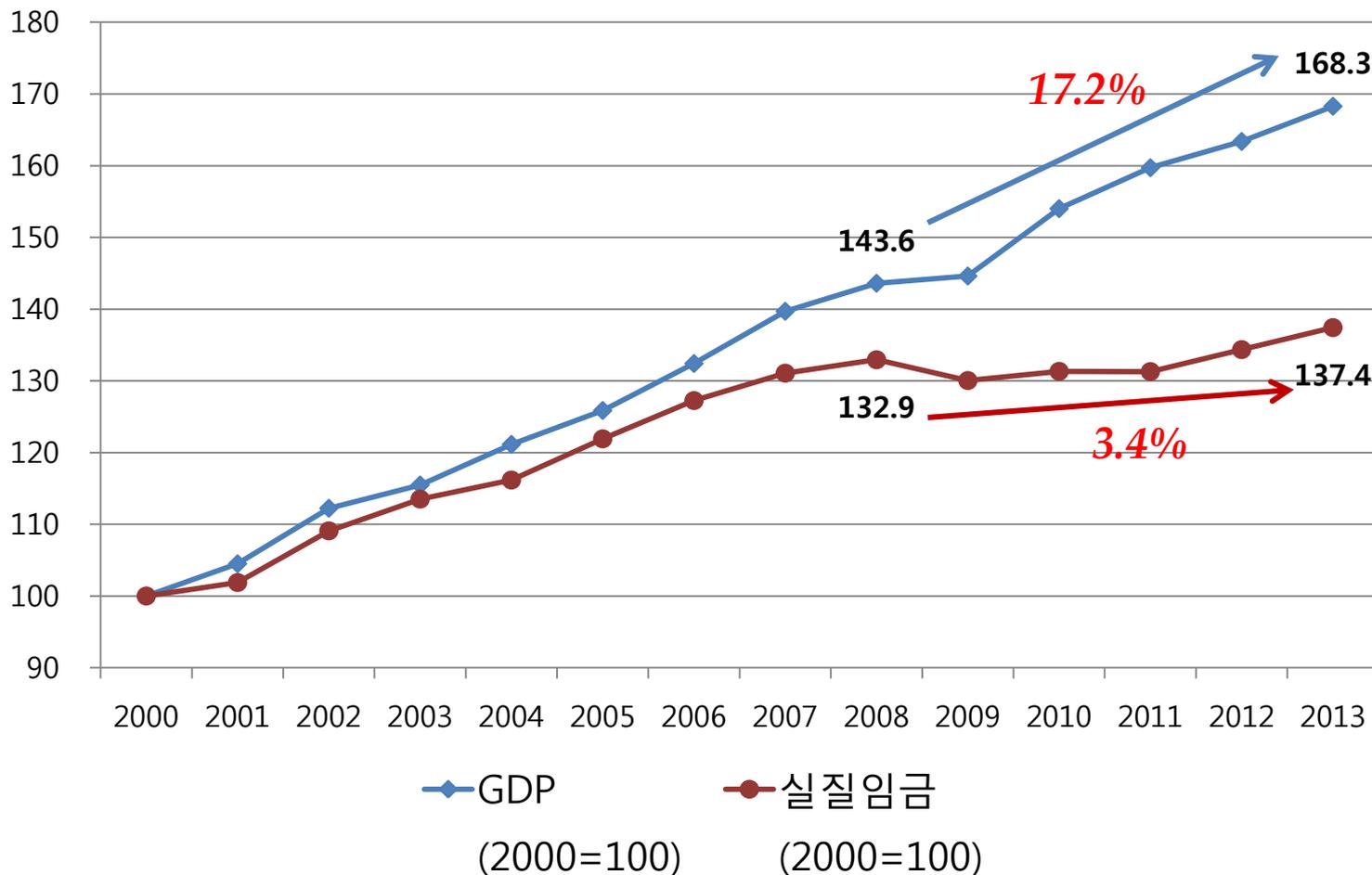
연평균 증가율



- 국민소득 제도부문 국민총소득을 기준한 것임.
- 국민총소득 디플레이터(GNI Deflator)를 적용해서 실질가치로 전환한 증가율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소득과 정부소득의 증가가 모두 경제성장률에 못 미쳤고, 기업소득 증가만 경제성장의 두 배이었다.

경제성장과 실질임금의 격차

200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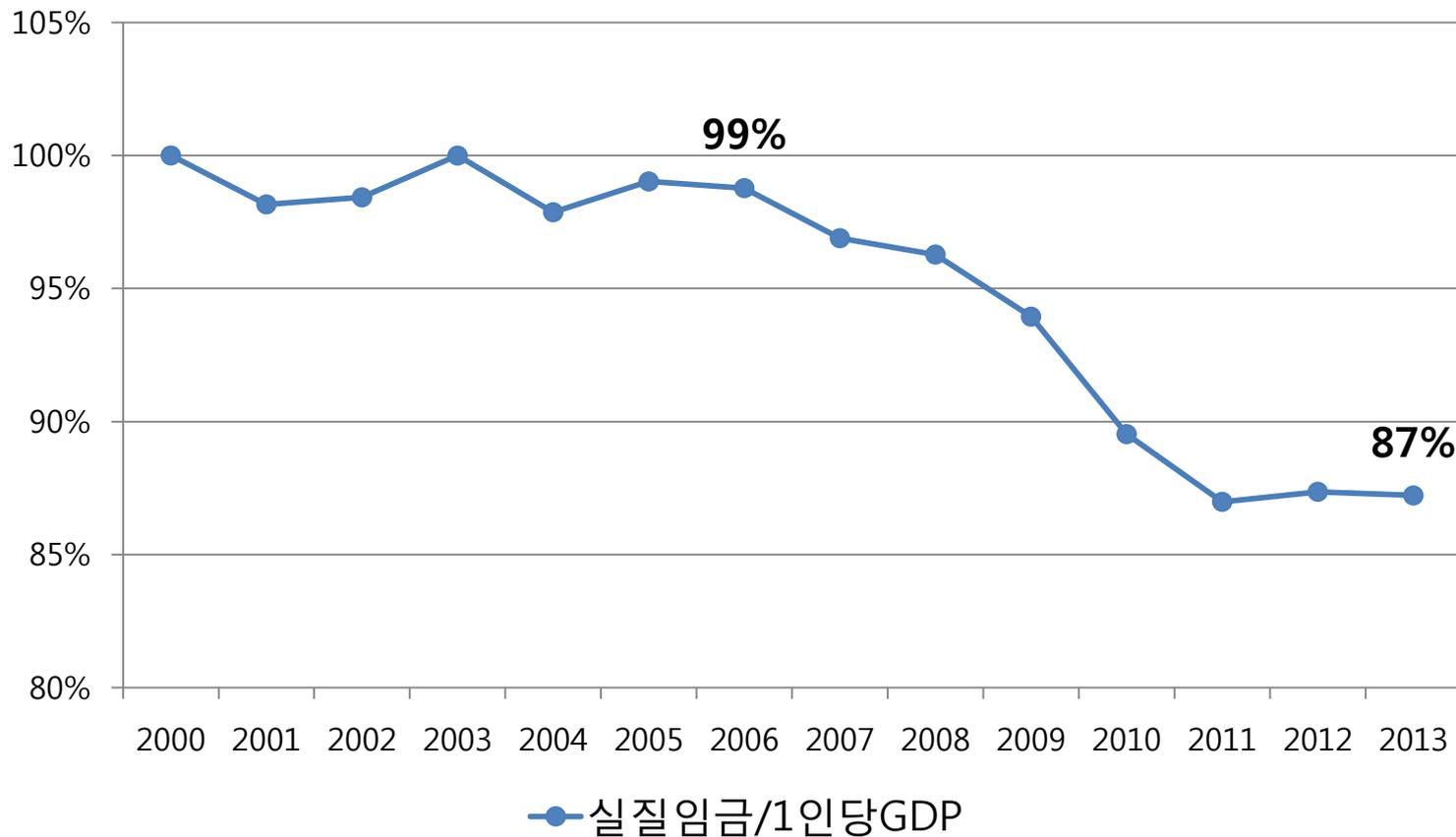


- GDP, 1인당GDP는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GDP Deflator)를 적용해서 실질가치로 전환한 것임.
- 실질임금은 전산업 평균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서 실질임금으로 전환한 것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1인당 GDP와 실질임금의 격차

200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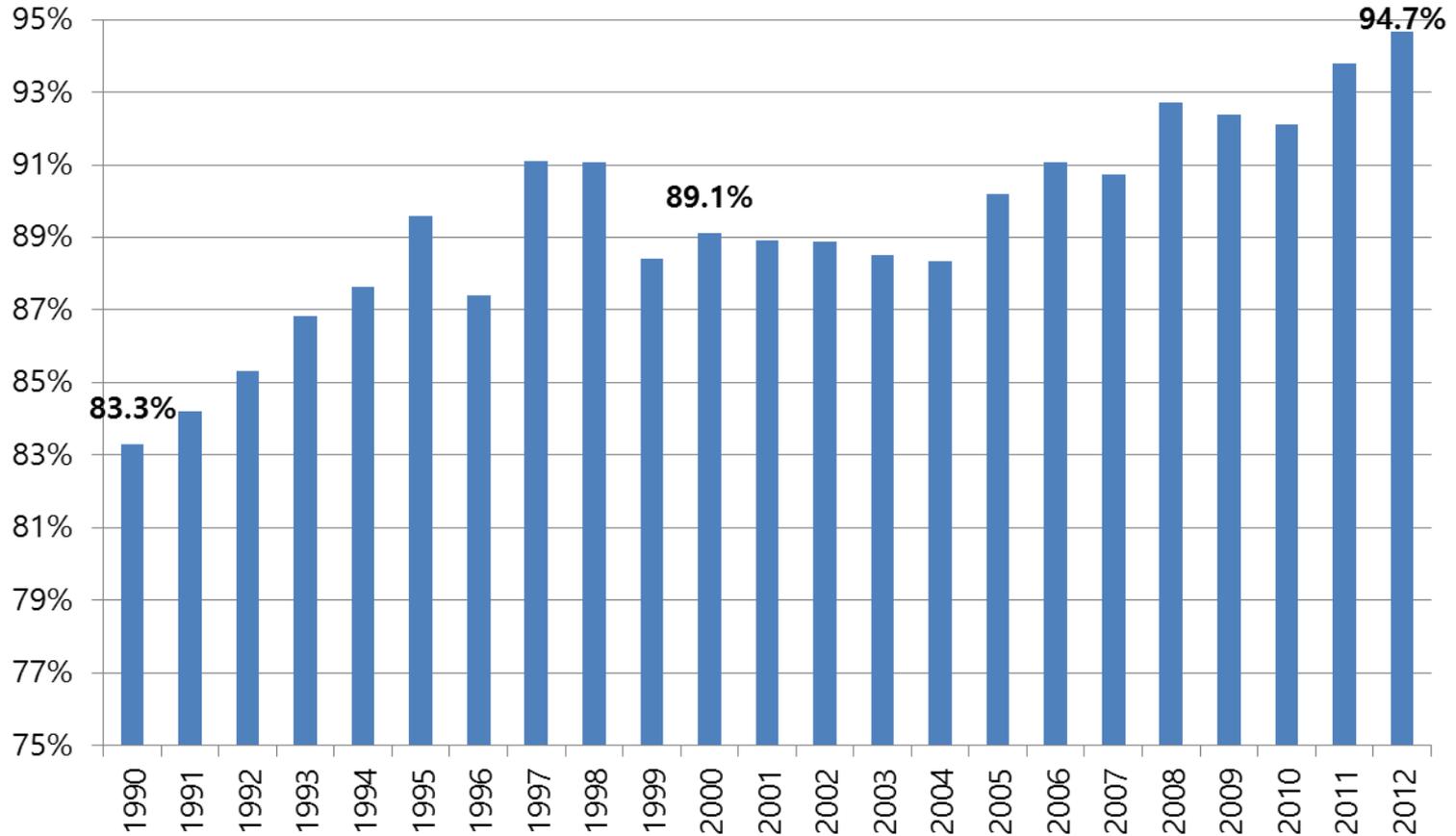


- 1인당GDP는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GDP Deflator)를 적용해서 실질가치로 전환한 것임.
- 실질임금은 전산업 평균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서 실질임금으로 전환한 것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사내유보율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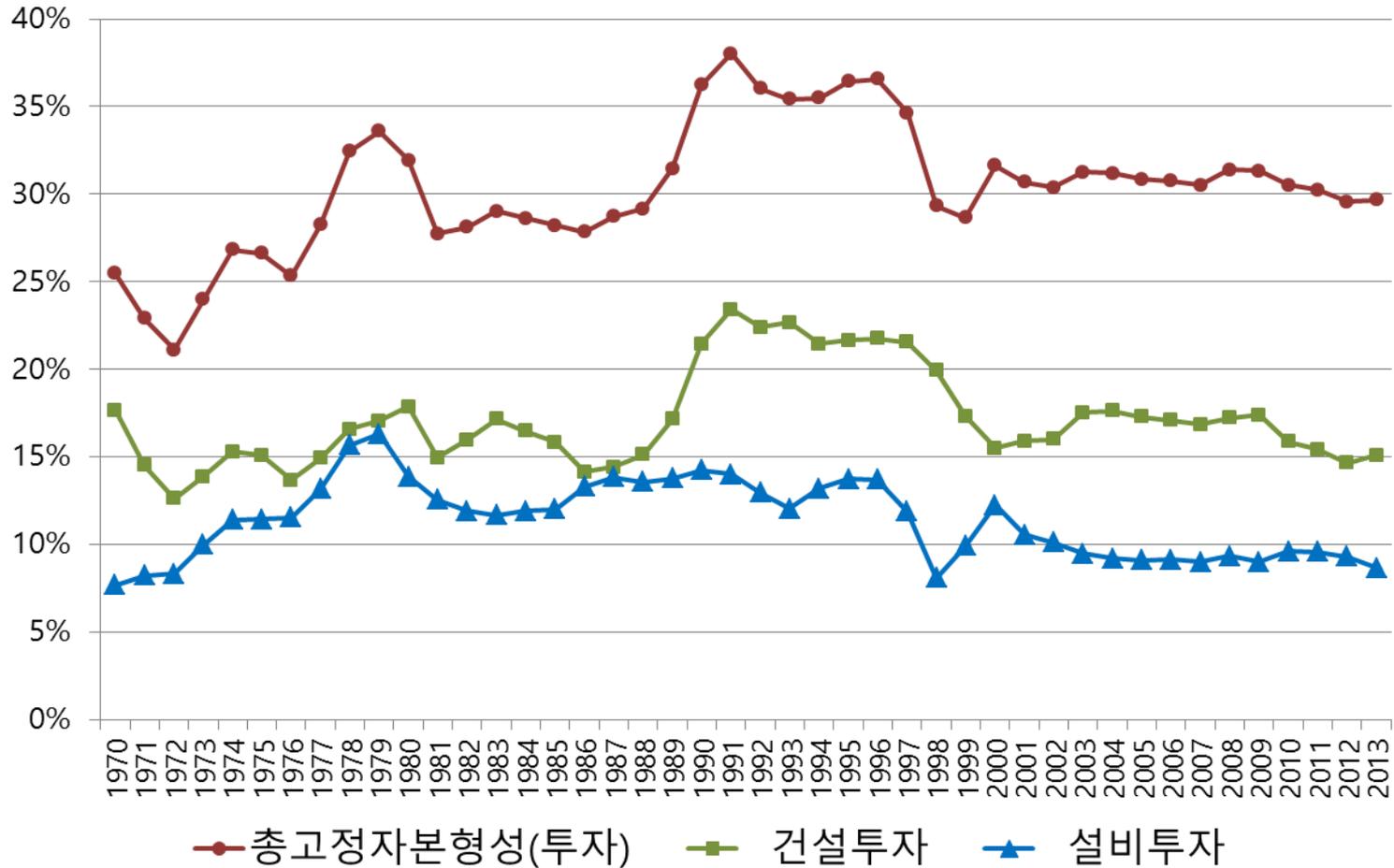


- 사내유보율은 이익잉여금과 적립금 중에서 회사 내부에 유보한 금액의 비중이다.
- 사내유보율은 기업경영의 성과를 처분하지 않고 기업이 보유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 1990년 83.3%, 2000년 89.1%, 2010년 92.1%, 2012년 94.7%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 제조업 사내유보율 자료는 1990년부터 작성되었다.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 기업경영분석 조상대상, 방법의 변화가 있는 경우 최근의 통계를 사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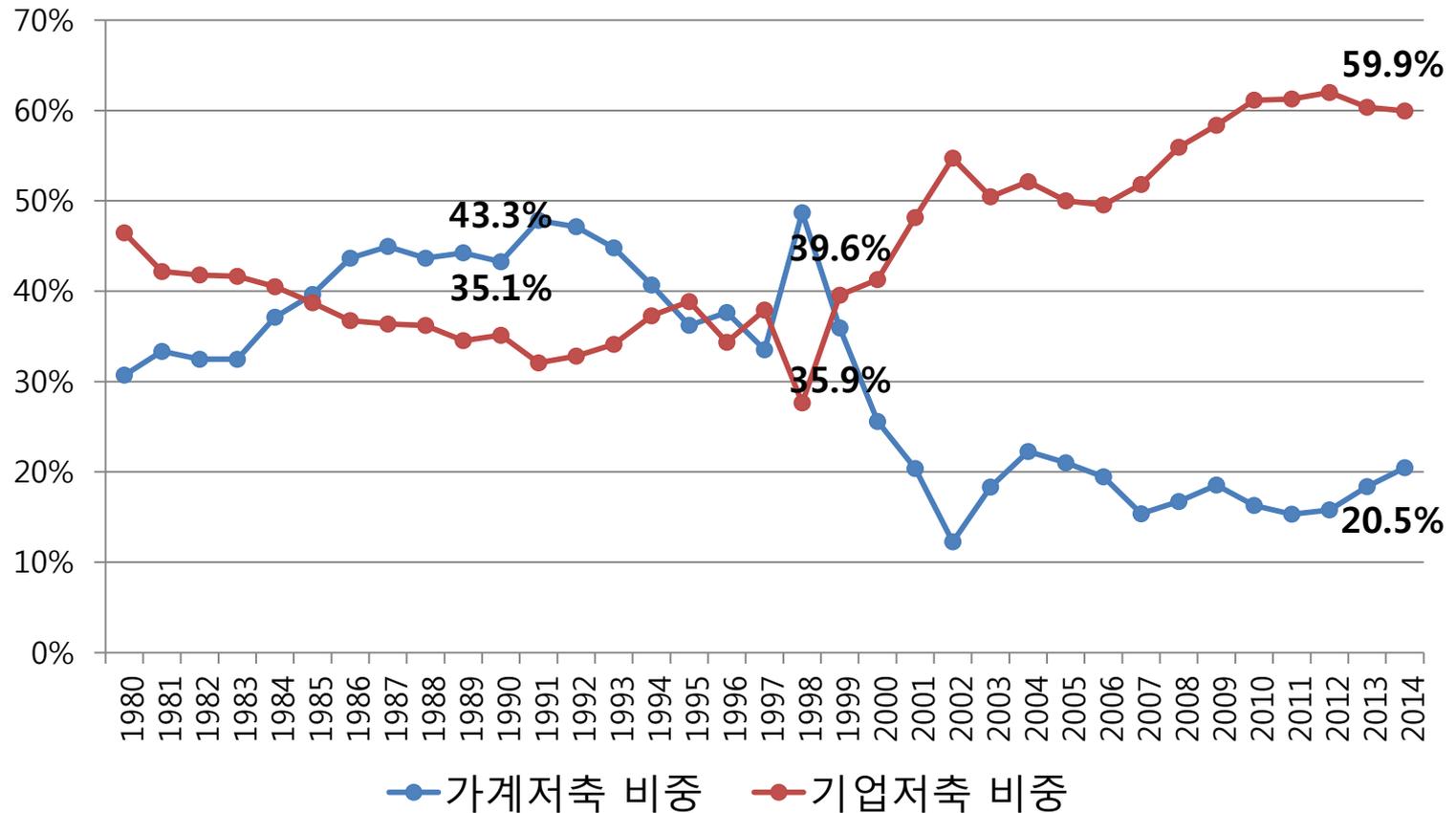
국내총생산(GDP) 중 투자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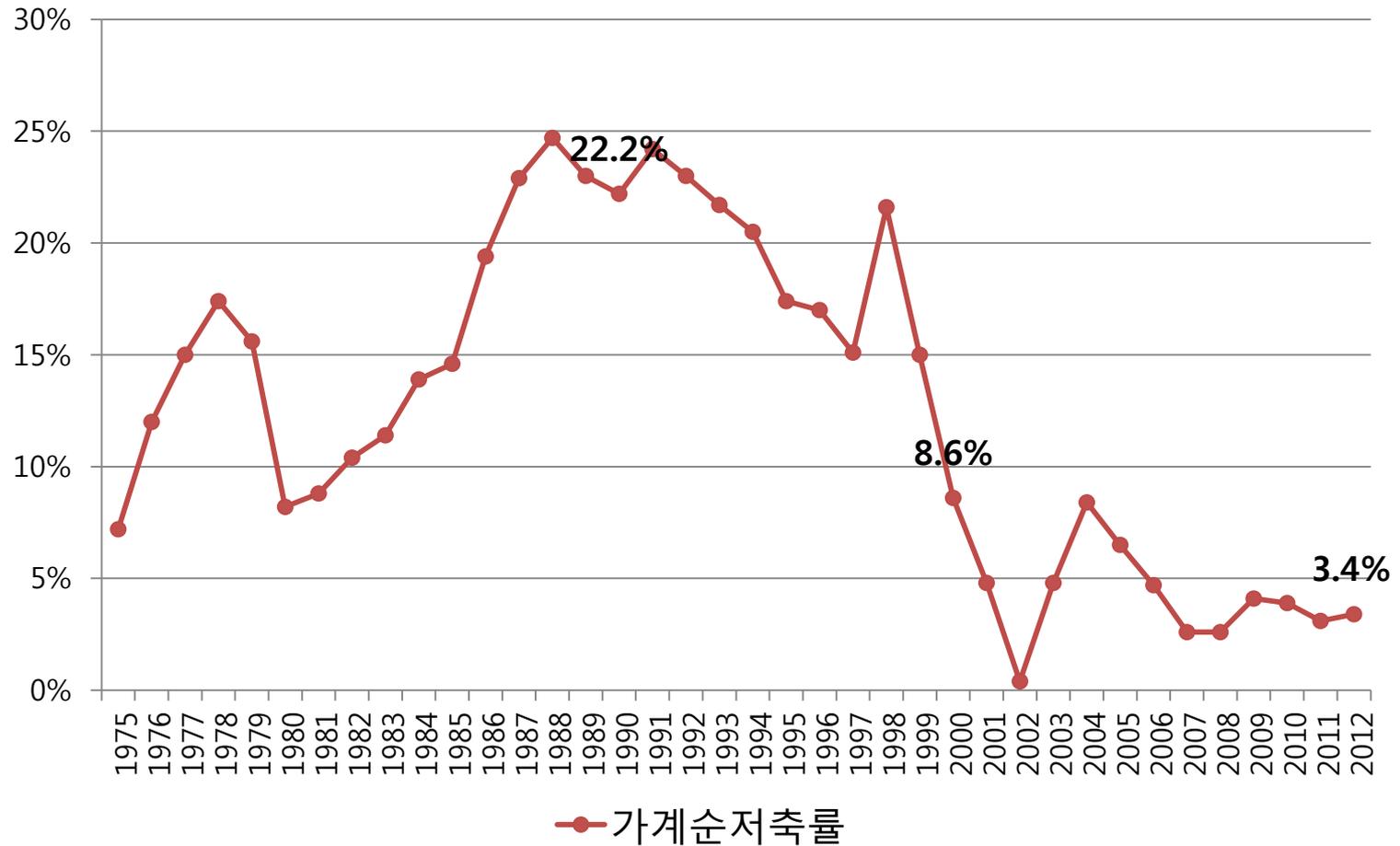
- 투자비중은 2000년 이후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 이후 하락추세이다.
- 2010년 이후 하락추세는 건설투자비중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 설비투자는 2002년 이후 안정적이 추세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하락하지 않았다.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1970-1999년은 2005년 기준, 2000년 이후는 2010년 기준

총저축 중 기업저축-가계저축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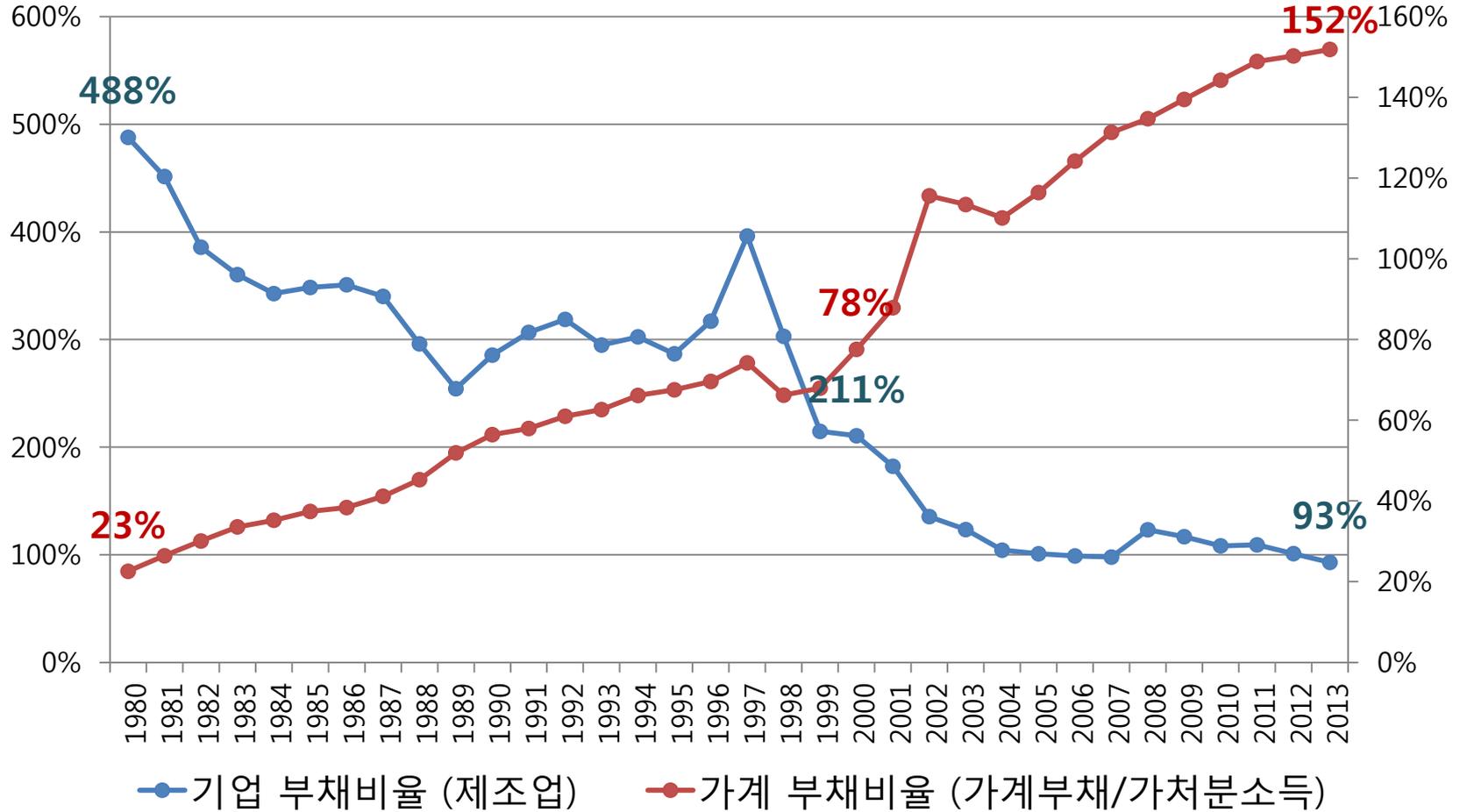
가계순저축률



기업부채-가계부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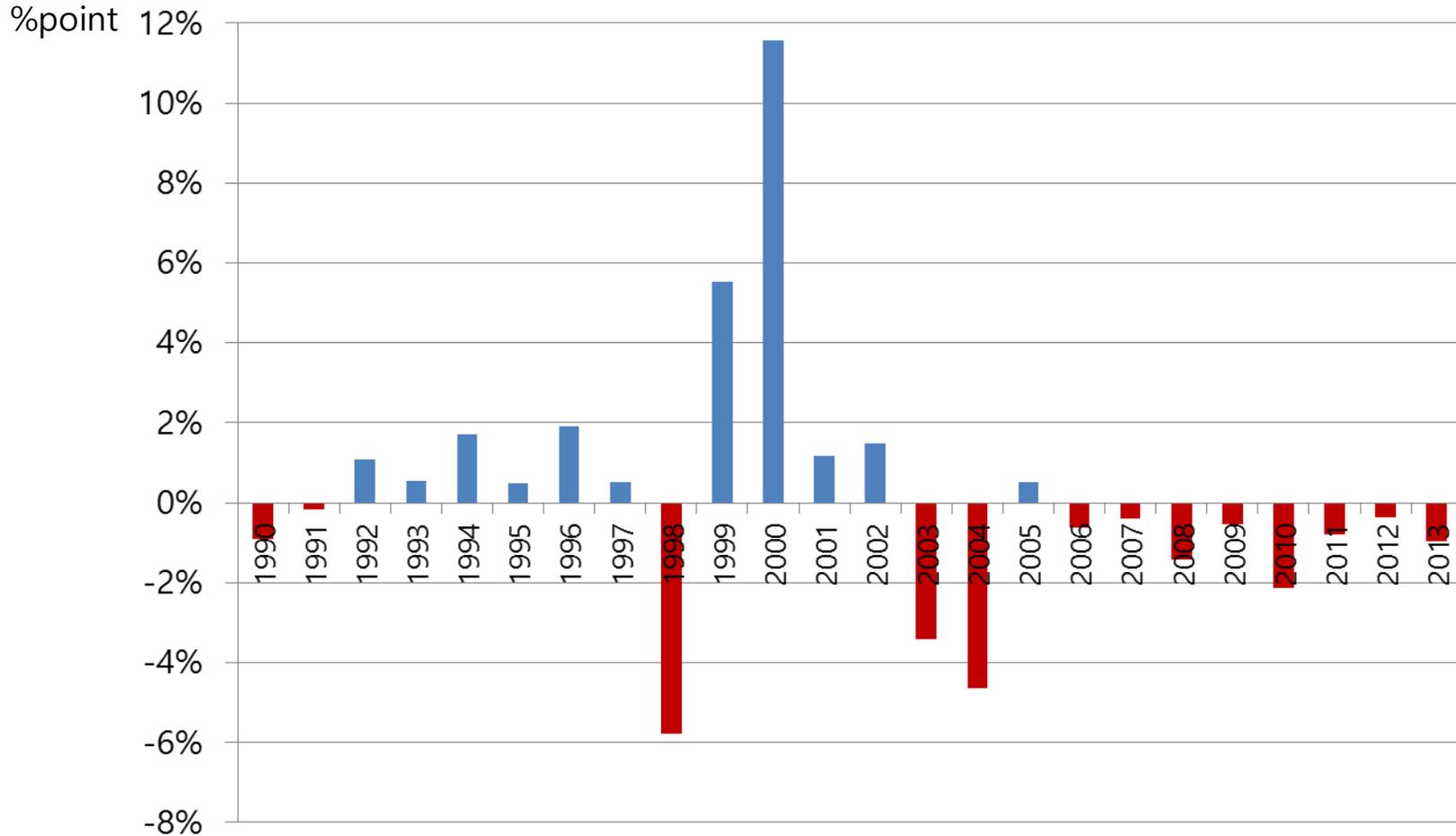
기업부채비율

가계부채비율



민간소비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격차

1990 - 2013



- 민간소비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차이(%point)이다.
- 2003년 이후에 2005년을 제외하고는 민간소비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 미국 100대 부자 (2014년, Forbes)
 - 78명 창업자
 - 22명 상속부자
- 한국 100대 부자 (2014년, 조선일보)
 - 16명 창업자
 - 84명 상속부자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한국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는가?**

없다 ππ

“바늘구멍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앞에 뚫린 좁디 좁은 구멍과
구멍을 향해 질주하는
다른 사람들 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경쟁에서 다만 잔존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자는 외침은
이미 패배에 져거나
겁을 집어먹은
우리에게겐 다소 버겁다.

아예 이렇지 않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

희망을 만들 수 있는가?

있다 ^^

누가?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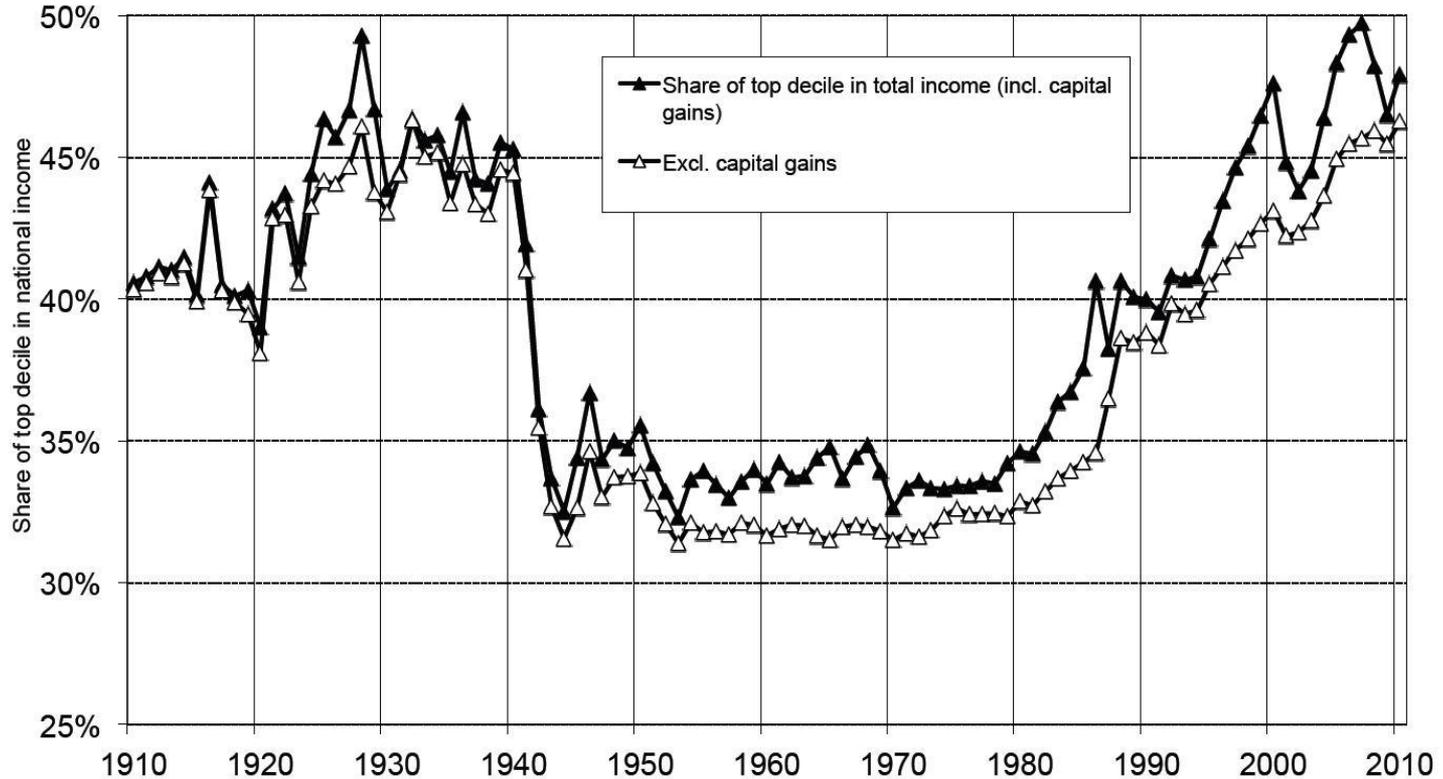
정의로운 한국 자본주의

-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세상은 스스로 진화하지 않는다
 -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 혁명이 아니라면 개혁
- 개혁은 가능한가?
 -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해야 한다
 - 정책의 실행은 정치적 의지와 역량

미국의 소득불평등

소득계층 상위 10%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Figure 8.5.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0-2010



The top decile income share rose from less than 35% of total income in the 1970s to almost 50% in the 2000s-2010s.

Sources and series: see piketty.pse.ens.fr/capital21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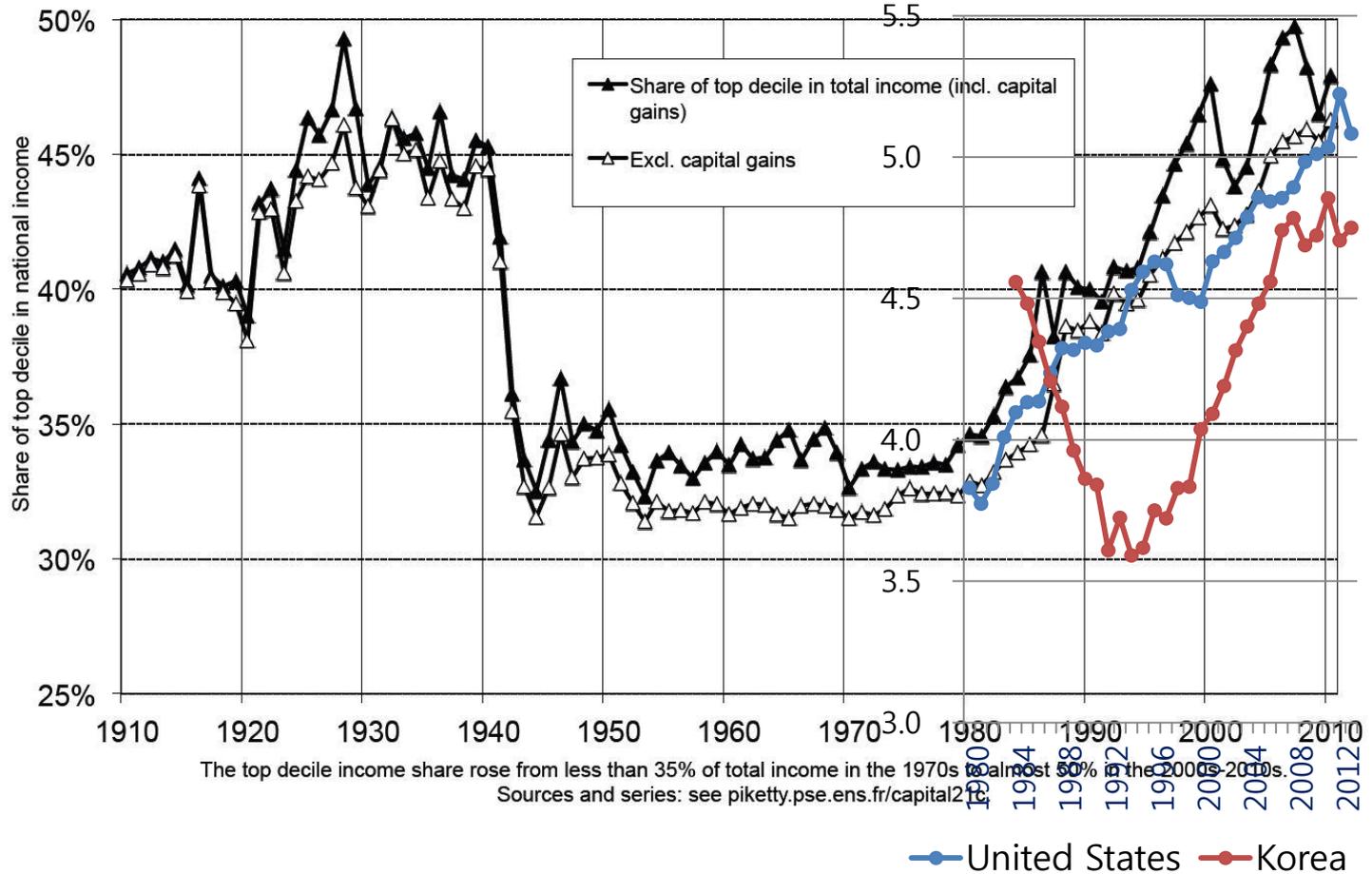
-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국민소득(national income) 중에서 소득계층 상위 10%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함
- ▲는 자본소득(capital gain)을 포함한 소득이며, △는 자본소득을 제외한 소득임

출처: Thomas Piketty,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291

미국의 소득불평등

소득계층 상위 10%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Figure 8.5.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0-2010



출처: Thomas Piketty,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291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은?

평등화

임금 평등

고용 평등

보육 평등